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15주년 특집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Korea Wealth Repor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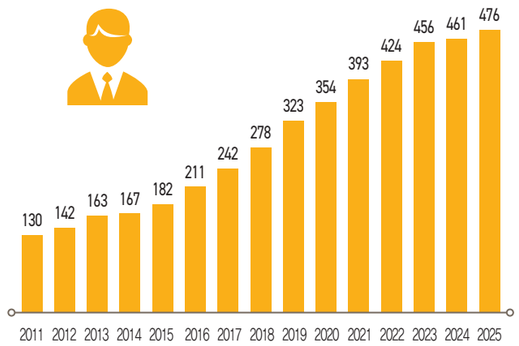
2025.12

황원경 | 김남경 | 김진성 | 강윤정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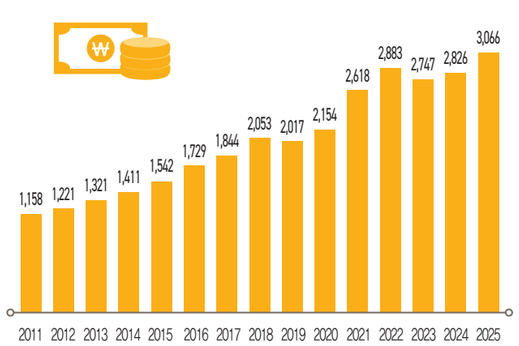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Snapshot

2011년 13만 명이었던 한국 부자는 2025년 47만 6천 명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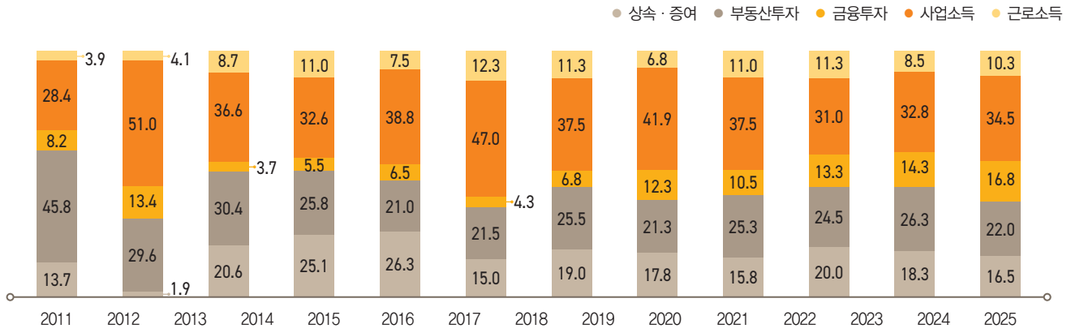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단위: 천명)

한국 부자의 올해 총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지난 15년간 매년 7.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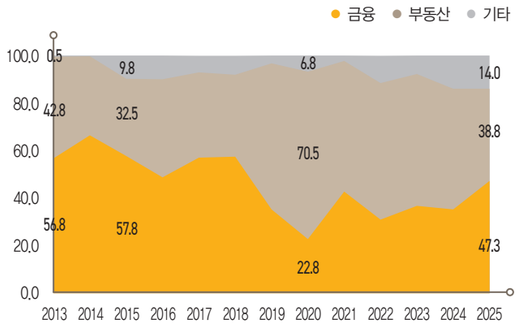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단위: 조원)

지난 15년 간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룬 원천은 부동산투자와 상속 · 증여 중심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투자 이익으로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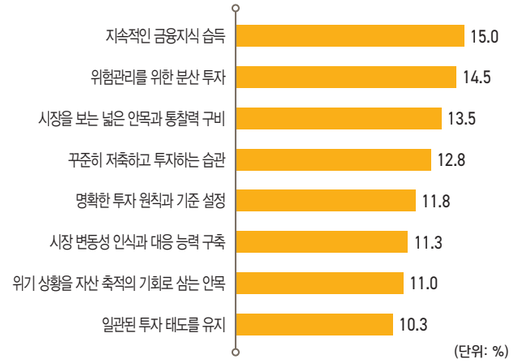
(단위: %)

한국 부자가 수익을 예상하는 단기 투자처로 기타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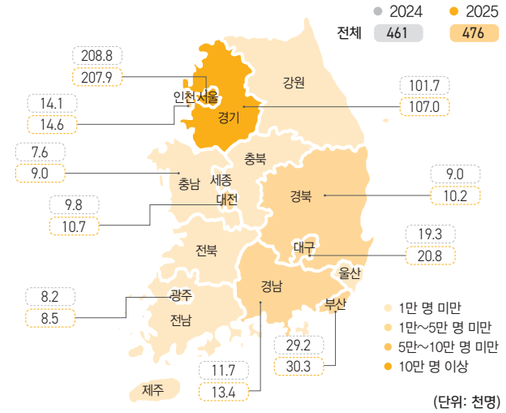
(단위: %)

부자가 전하는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1순위는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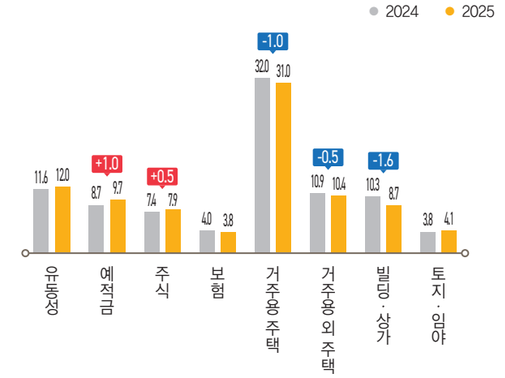
(단위: %)

한국 부자는 69.2%가 수도권에 거주, 전년 대비 이 지역에서 4천 9백 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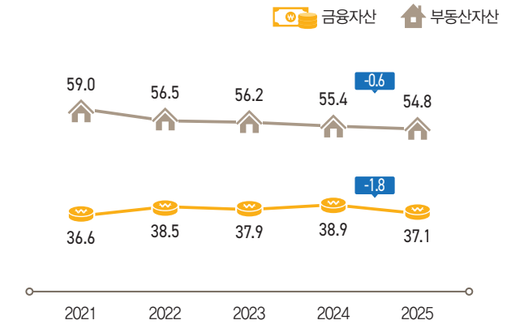
(단위: 천명)

전년 대비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예적금 비중은 증가,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



※평균값 기준 (단위: %, %p)

부자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4.8%, 금융자산 37.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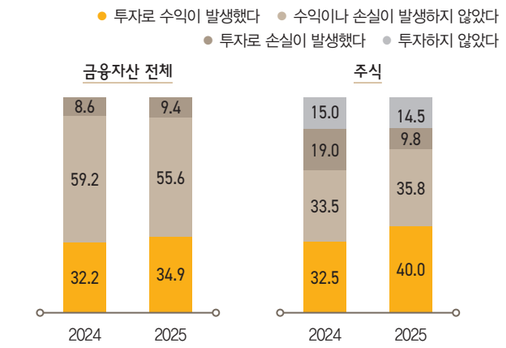


※중간값 기준, 기타자산은 그래프에서 제외 (단위: %)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 속 국내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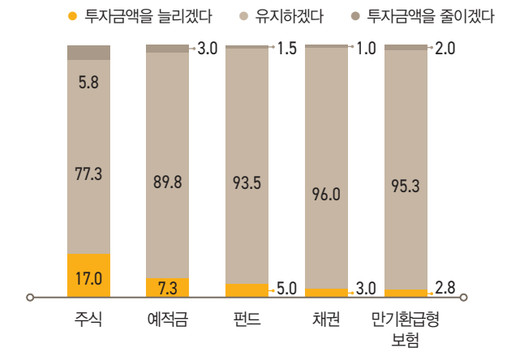
순위	2024	2025
1	국내 부동산 투자	국내 부동산 투자
2	실물(금 · 보석) 투자	국내 금융 투자
3	국내 금융 투자	실물(금 · 보석) 투자
4	경제동향 정보 수집	경제동향 정보 수집
5	세무 상담	세무 상담
6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은퇴 · 노후 상담
7	소비 · 지출 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

지난 1년 간 주식 투자 수익 경험 증가가 금융자산 전반의 양호한 성과를 견인



(단위: %)

내년 금융투자 기조는 현상 유지로, 주식의 경우 자금 추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단위: %)

Contents

특집 편 지난 15년, 한국 부자의 발자취 1

01 부의 관리 환경 변화 4
02 한국 부자 수와 자산의 변화 10
03 부에 대한 인식 18
04 부의 축적 기반 24
05 부 축적의 노하우 28
06 부자의 자산관리 철학 34
요약 Key Findings 42

Ⅰ. 한국 부자 현황 45

01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46
02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50
요약 Key Findings 52

Ⅱ.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 53

01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54
02 부자의 투자 성향 56
03 부자의 투자 성과 60
04 부자의 주식 투자 현황 64
요약 Key Findings 66

Ⅲ.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 67

01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68
02 부자의 미래 투자 방향 70
03 부자의 미래 투자 계획 74
요약 Key Findings 76

[붙임] 77

01 연구방법 78
02 용어정의 80
03 참고문헌 81

특집 편

지난 15년,
한국 부자의 발자취

01 | 부의 관리 환경 변화

02 | 한국 부자 수와 자산의 변화

03 | 부에 대한 인식

04 | 부의 축적 기반

05 | 부 축적의 노하우

06 | 부자의 자산관리 철학

‘15주년 특집호’에 들어가며

2011년 처음 발간된 《한국 부자 보고서》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온 《한국 부자 보고서》는 부자의 모습과 자산관리 방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와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해 왔다. 특히 부자를 꿈꾸며 자산을 키우고 있는 미래 부자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5년여 간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상승하며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부(富)가 꾸준히 성장해 왔다. 사회·문화 및 경제·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부자의 자산 축적 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과 회복이 교차하던 시기를 지나,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과 금융상품 중심의 자산 축적을 촉진했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 접근성 확대는 개인의 자산시장 참여를 넓혔고, 글로벌 무역 갈등과 산업 구조 변화는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금융시장 급락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부의 성장이 정체됐으나, 이후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시행되며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2021년에는 한국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택매매가격지수 역시 팬데믹 기간 누적된 유동성과 수요 증가로 고점을 경신했다. 이 시기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배경이 됐으며, 부의 절대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팬데믹 이후에는 공급망 차질과 생산비용 상승, 억눌렸던 소비 심리 폭발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며 물가 부담이 커졌고, 이는 소비와 투자 여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의 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 및 경제·금융 흐름과 그로 인해 형성된 소비자 트렌드 같은 부의 관리 환경 변화를 돌아보고, 시기별 부의 형성과 확대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제1장 ‘부의 관리 환경 변화’에서는 한국 부자가 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경제 등 제반 환경을 돌아보고, 제2장 ‘한국 부자 수와 자산의 변화’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의 수와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짚어본다. 제3장 ‘부에 대한 인식’은 한국 부자가 부와 부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지 등 부를 대하는 태도를 엿본다. 제4장 ‘부의 축적 기반’은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한 원천과 종잣돈, 목표액 등에 대해 다룬다. 제5장 ‘부 축적의 노하우’에서는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와 관련해 어떤 관심사를 가졌고, 실제로 어디에 투자해 왔는지 단기 투자처 등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자산관리 철학’은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성공적 자산관리 팁, 미래 부자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5년의 《한국 부자 보고서》

01
부의 관리 환경 변화

지난 15년간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흐름은
연결과 단절, 불안과 회복, 기술과 인간 사이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다

지난 15년 간 부(富)의 성장 과정은 기술 혁신이 새로운 자산·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과 위기가 자산 재편을 가속하며, 세대와 가치관의 변화가 투자 및 소비 방식을 재구성한 시기였다. 이 기간 부의 관리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문화 및 경제·금융 트렌드와 그 영향으로 나타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조명해 보았다.

2009년 이후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불안', '회복', '각성', '단절', '균형'이라는 사회적·문화적 흐름을 거치며 진화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2년에 용산 참사, 강호순·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 위험은 긴장감을 높였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급되며 일상이 빠르게 디지털화됐고, '연결된 개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사회'가 시작됐다. 2013년부터 2016년은 집단적 상처를 개인의 삶 속에서 치유하려는 '회복의 문화'가 사회를 지배했다. 세월호 참사(2014년)와 메르스 유행(2015년)이 남긴 국민적 트라우마 속에서 '힐링', '소확행', '워라밸' 등 일상의 작은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모바일 기반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며 배달·소비·여가의 패턴이 개인화·간편화됐고,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밥·혼술'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부상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미투 운동 확산은 성평등과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보이콧 재팬' 운동을 촉발하며 시민들의 결속과 저항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성공, K-드라마의 흥행, K-뮤비의 국제적 수상 등 K-컬처는 세계적인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은 한국 사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대면 활동이 급감하고, 원격근무·온라인수업·비대면 소비 등 모든 영역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술의 급격한 일상화와 동시에 '심리방역'과 '피로사회'라는 표현이 일상어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피로감과 고립감이 깊어졌다. 2023년 이후 팬데믹으로 멈췄던 일상은 재가동됐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며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사람들은 지나친 효율성과 경쟁 추구에 피로감을 느꼈고, 의료 공백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안 요인을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 '돌봄',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림 1 대한민국 사회·문화 트렌드 변화 (2009~2025년)

	시대 배경	메가 트렌드	연도별 사회·문화 주요 이슈		대통령
2009	불안과 참여사회 (2009~2012)	불안과 연결의 시대	▲용산 참사 ▲강호순·조두순 사건 등 악성 범죄 성행	▲신종플루(H1N1) 유행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국내 출시	제17대 이명박
2010		#불안사회 #스마트폰 #SNS연결 #참여문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출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출시	▲소셜커머스 '티몬' 도입 ▲SNS '페이스북' 한국어 서비스 시작 ▲OTT 서비스 '티빙' 출시	
2011			▲4G·LTE 시대 개막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	▲SNS '트위터' 한국어 서비스 시작	
2012			▲토요휴업제 시행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SNS 카카오스토리 출시	▲싸이 '강남스타일' 세계적 돌풍 ▲한국 인구 5천만 명 돌파	
2013	회복과 자기중심 (2013~2016)	힐링과 자기돌봄, 일상의 재구성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아리랑 5호 위성 발사 성공		제18대 박근혜
2014		#집단트라우마 #힐링 #소확행 #O2O #1인소비	▲세월호 참사 ▲스타벅스코리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주문 서비스 '사이렌 오더' 도입		
2015			▲메르스(MERS) 대유행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 출시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폐지)	
2016			▲경주 지진(규모 5.8)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증강현실(AR) 기술 국내 상용화 ▲OTT 플랫폼 '넷플릭스' 국내 출시	
2017	공정·각성·글로벌화 (2017~2019)	공정과 K-컬처 확산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한국 '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국내 인스타그램 월활동사용자(MAU) 1천만 명 돌파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유행	제19대 문재인
2018		#공정사회 #각성 #K-콘텐츠 #팬덤경제	▲미투운동 확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평창 올림픽 개최 ▲BTS 아시아 가수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빌보드 200)	
2019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보이콧 재팬' 운동 확산 ▲5G 상용화	▲트로트 열풍('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2020	팬데믹과 비대면 전환 (2020~2022)	팬데믹과 단절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BTS <Dynamite>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OTT 산업(유료 시장)의 고성장	제19대 윤석열
2021		#언택트 #디지털생존 #심리방역 #피로사회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메타버스 열풍	▲드라마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 ▲OTT 산업(유료 시장) 고성장	
2022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10·29 이태원 참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챗GPT 등장	
2023	기술 일상과 균형의 시대 (2023~2025)	AI와 인간, 효율과 돌봄의 균형	▲코로나19 엔데믹 선언(2023년 5월) ▲만 나이 제도 시행	▲'챗GPT 플러스(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 및 생성형AI 본격 상업화	제20대 이재명
2024		#AI일상화 #기술·인간공존 #정서적복귀 #균형과돌봄	▲제주항공 무안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의료 공백(의대 증원 갈등)	
2025			▲챗GPT(ChatGPT-4o) 이미지 변환 유행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의료 공백(의대 증원 갈등)	

최근 15년간 한국 경제는 위기·유동성·갈등·팬데믹·긴축을 거쳐 산업 재편과 새로운 금융질서가 요구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지난 15년간 경제 및 금융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다. 세계 주요국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초저금리 기조가 자리 잡았고, 한국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제가 빠른 반등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16년은 완화 정책이 초래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자산 전반이 상승한 시기였다. 한국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였다. 투자와 수출이 살아났지만, 내수는 체감적으로 둔화됐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테이퍼링), 유럽 재정위기 여진, 중국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변수 속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점차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간편결제·모바일 뱅킹·핀테크의 성장은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경제는 구조적 변곡점을 맞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한국은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2019년)까지 더해져 제조업 전반에 위기가 닥쳤다. 금융시장에서는 핀테크·간편결제·인터넷은행 등 금융 디지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투기 열풍을 키웠다. 한편 2020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팬데믹 초기 각국 정부는 사상 최대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쏟아내며 실물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로 인한 유동성 폭발은 글로벌 주식·부동산·가상자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 2020년 초 한국종합주가지수(코스피, KOSPI)는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했으나(1분기 말 1,754.6포인트) '동학 개미' 투자 열풍 속 2021년 '코스피 3천 시대'를 열었다(2분기 말 3,296.7포인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상반기까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유동성과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꾸준히 상승했고, 6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00.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폭발적 유동성은 고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으나, 한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며 자산시장은 급랭했다. 그 여파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경제는 긴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3년 이후 세계 경제는 팬데믹 부작용과 구조적 문제부터 고금리와 저성장,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 전환까지 복합적 과제에 직면했다.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완만히 꺾였지만 고물가 체감은 지속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식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냈고, 전통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반도체·배터리 등의 신규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및 산업 질서가 나타났다. 특히 AI 관련 기술주가 글로벌 주식 상승장을 주도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2025년 6월 3천 선을 돌파한 후(2분기 말 3071.7포인트) 상승세를 이어가며(3분기 말 3424.6포인트)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성장을 견인했다.

그림 2 대한민국 경제·금융 트렌드 변화 (2009~2025년)

지난 15년간 한국의 소비 트렌드는 ‘실리’에서 ‘감성’으로, ‘필요’에서 ‘나다움’으로 차분하게 옮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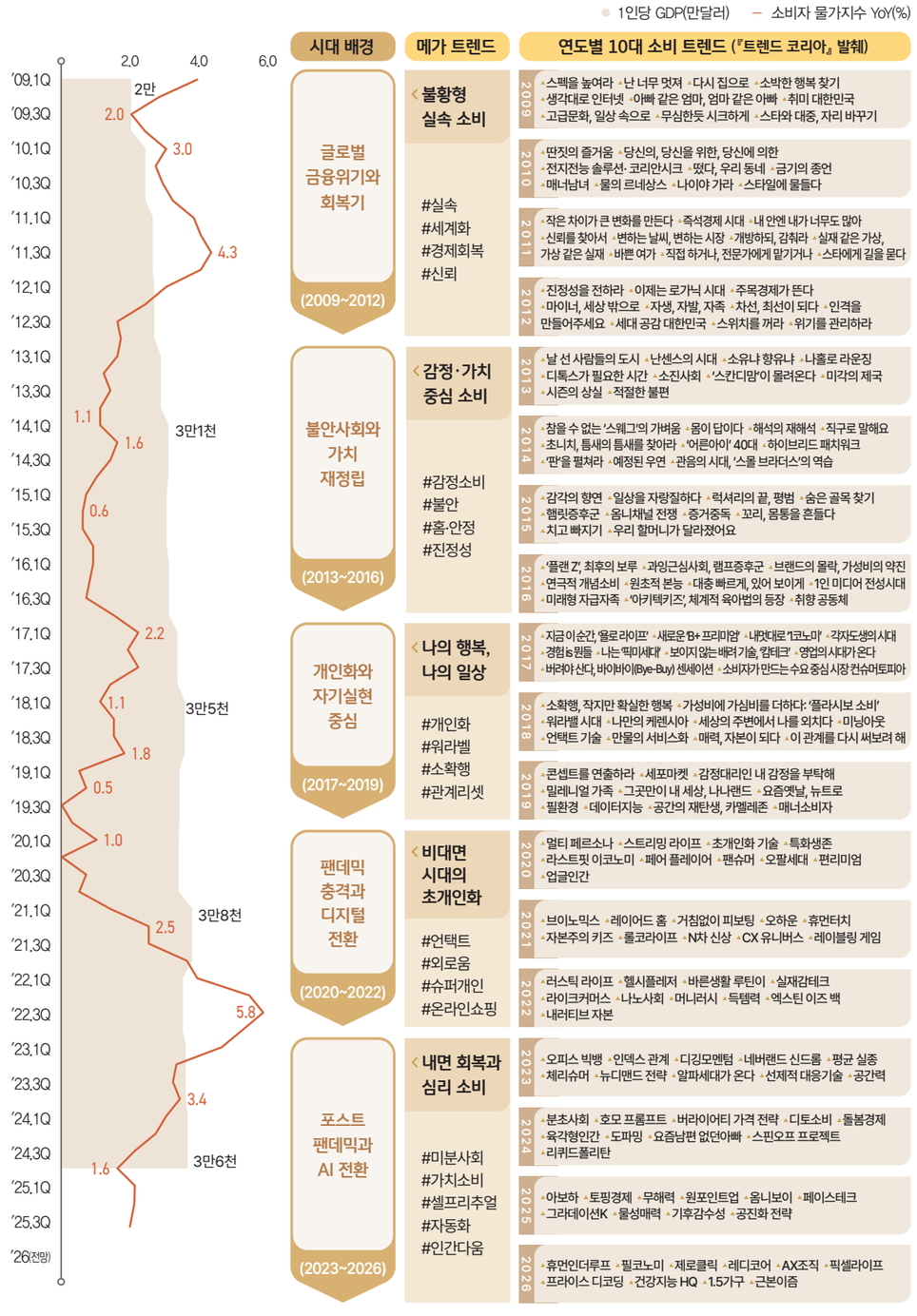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지난 15년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금융 트렌드 변화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1만 9,933 달러에서 2024년 3만 6,239 달러까지 상승했고(IMF 통계), 같은 기간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국제 경제의 ‘우상향’ 흐름과는 달리, 개인의 소비 행태는 경제 위기, 사회적 트라우마, 팬데믹 등 거대한 외부 요인에 흔들리면서도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여정을 보여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201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3%)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데 이전보다 신중을 기하며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은 이러한 변화에 불을 붙여 소비자는 구매 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하고 후기와 평점을 참고하는 등 ‘스마트하게’ 변모해 갔다.

2013년부터 2016년은 이른바 ‘불안사회’라는 키워드가 대두됐다. 세월호 참사(2014년)와 메르스 유행(2015년) 같은 대규모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며 소비를 위축시킨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과 슬픔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려는 감정적 욕구를 소비에 투영하기 시작했다. 이때 브랜드는 화려한 마케팅보다 정직함과 진정성이 요구됐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국 사회는 더욱 빠르게 개인화됐고, 1인 가구의 증가, SNS의 확산, 워라밸 문화의 정착은 소비에서 ‘나’라는 주체를 부각시켰다.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했고, 대형 브랜드보다 로컬 브랜드, 체험과 취향 기반의 소비,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사치가 인기를 끌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팬데믹은 소비 가치관의 지도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동과 만남이 제한되고 집이 일터와 학교, 여가생활 공간의 기능까지 대신하면서 소비는 다시 한 번 ‘생존’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중심에 뒀다. ‘언택트’ 서비스의 일상화로 배달·스트리밍·원격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게 자신과 시간을 보냈고, 사회적 단절감과 외로움 속에서 개인공간의 가치가 급상승했다. 다만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19 지역 봉쇄 완화 이후 억눌렸던 민간 소비 회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3분기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5.8%을 기록했다.

2023년 이후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팬데믹이 야기한 피로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자기 감정을 중시하고 내면 회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급속히 일상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갈증을 더 크게 느꼈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감정·공감·리추얼·정체성 같은 가치가 소비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 ‘안식’과 ‘자기 표현’, ‘첨단 기술과의 공존’의 소비 트렌드는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3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변화 (2009~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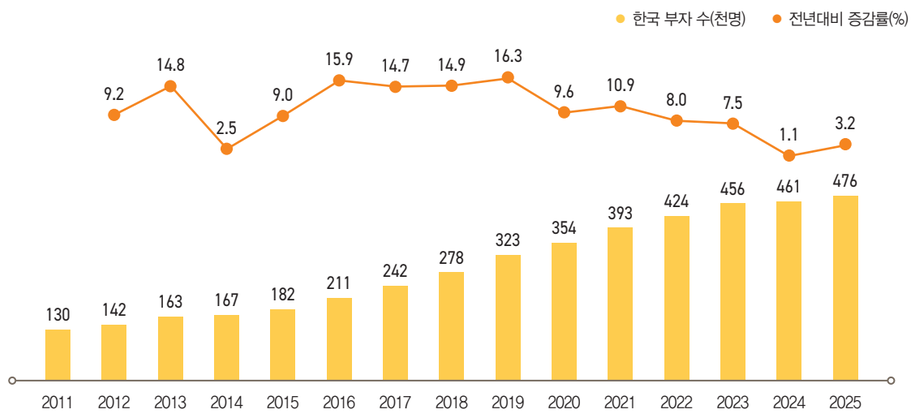
02

한국 부자 수와 자산의 변화

한국 부자 수는 2011년 13만 명에서 2025년 47만 6천 명으로 매년 9.7% 늘었다

한국 부자 연구를 시작한 첫 해인 2011년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13만 명이었으나 15년이 지난 2025년에는 47만 6천 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연평균 9.7% 증가율을 보였다. 총인구 중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7%에서 2016년 0.41%, 2020년 0.68%, 2022년 0.82%, 2025년 0.92%를 기록했다. 1% 미만의 수치를 보여 증가율이 적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같은 기간 총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5%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매우 빠른 증가세로 볼 수 있다. 한국 부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19년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고, 다음으로 2016년(15.9%), 2018년(14.9%), 2013년(14.8%), 2017년(14.7%)의 순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15%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주가와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 5천 달러에 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3만 8천 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2024년 3만 6천 달러로 하락한 점으로 미루어볼때, 2018년까지는 경제 성장기로 판단할 수 있다. 본격적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국 부자 수의 증가율도 하락하여 전년 대비 2024년에는 1.1%, 2025년에는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4 한국 부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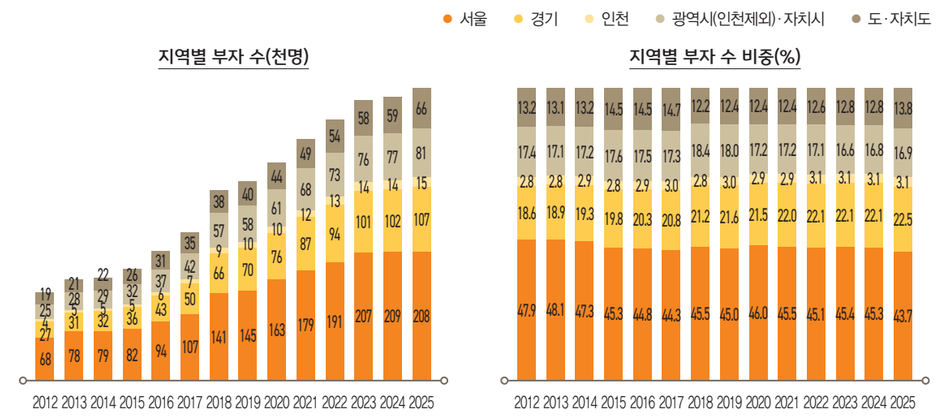
2012년 이후 한국 부자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했고, 경기도는 비중이 늘었고 서울은 줄었다

2012년 이후 14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 정도가,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자치시 포함)와 도 지역에 30% 정도가 거주해 왔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추정된 올해 한국 부자 중 절반 정도(43.7%)인 20만 7천 명이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었으며, '경기도'(22.5%)와 '인천광역시'(3.1%)에 각각 10만 7천 명, 1만 5천 명이 거주해 수도권에 33만 명(69.2%)이 집중됐다. 지난 14년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 부자는 2012년 69.3%에서 2023년 70.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5년 69.2%를 기록하는 등 70%대 비중을 줄곧 유지해 왔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가 연평균 1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연평균 9.0%, '인천광역시'는 10.4%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18.6%에서 2020년 21.5%, 2025년 22.5%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서울특별시'은 2012년 47.9%, 2020년 46.0%, 2025년 43.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4대 광역시와 세종자치시에 거주하는 한국 부자는 2012년 17.4%에서 2020년 17.2%, 2025년 16.9%로 17%대 비중을 기록했고, 도 지역은 2012년 13.2%, 2020년 12.4%, 2025년 13.8%로 13% 내외를 유지했다.

그림 5 지역별 한국 부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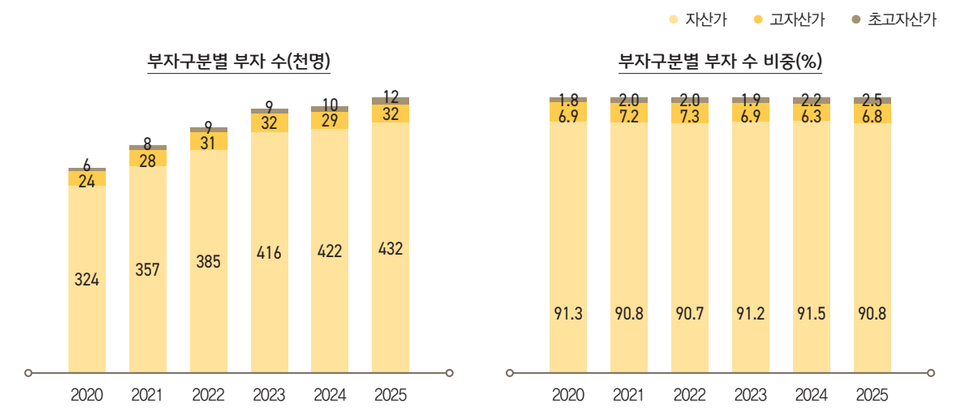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2020년 이후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의 초고자산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역별 부자 수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이번에는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별로 한국 부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1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를 '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300억원미만의 부자는 '고자산가', 300억원이상의 부자를 '초고자산가'로 정의했다.

이 같은 부자 구분을 적용해 한국 부자 수 추이를 처음 살펴 본 2020년에는 총 35만 4천 명의 한국 부자 중 '자산가'는 32만 4천 명, '고자산가'는 2만 4천 명, '초고자산가'는 6천 명으로 각각 91.3%, 6.9%, 1.8%를 차지했다. 반면 2025년에는 '자산가'가 43만 2천 명, '고자산가'가 3만 2천 명, '초고자산가'가 1만 1천 명으로 각각 90.8%, 6.8%, 2.5%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자산가'는 10만 8천 명이 늘어 연평균 5.9% 증가했고, '고자산가' 역시 5만 8천 명이 늘어 연평균 5.8%로 자산가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초고자산가'는 같은 기간 5천 명이 늘어 연평균 12.9%로 자산가와 고자산가 증가율의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2020년 이후 초고자산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산가와 고자산가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6 부자구분별 한국 부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자산가는 금융자산 10~100억원미만을, 고자산가는 금융자산 100~300억원미만을, 초고자산가는 금융자산 30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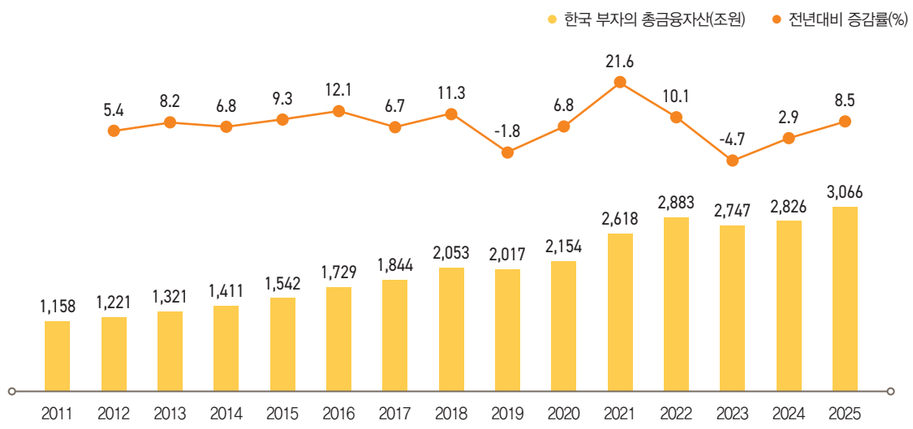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011년 1,158조 원에서 2025년 3,066조 원으로 매년 7.2% 늘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011년 1,158조 원, 2015년 1,542조 원, 2020년 2,154조 원, 2025년 3,066조 원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2018년에 2,0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에는 3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해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추산한 2021년(2,6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및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했고 반도체와 K-콘텐츠가 호황을 누렸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금리 인하 등으로 2020년 말 코스피(KOSPI)가 2,545포인트로 전년(2,113포인트)대비 20.4% 상승하면서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이 외에 2016년(12.1%), 2018년(11.3%), 2022년(10.1%)에도 총금융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2019년(-1.8%)과 2023년(-4.7%)을 제외하고 매년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2019년의 경우 2018년 말에는 코스피(KOSPI)가 2,103포인트로 전년 대비 15.8%, 2023년의 경우 2022년 말 코스피(KOSPI)가 2,341포인트로 전년 대비 -21.5%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자산 감소를 이끌었다. 당시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여 2021년 말 코스피(KOSPI)가 2,980포인트까지 상승하자, 정부에서 유동성 축소를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섰고 2022년 말 주식과 채권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림 7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추이 (단위: 조원, %)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총금융자산 증가율이 초고자산가는 높고 고자산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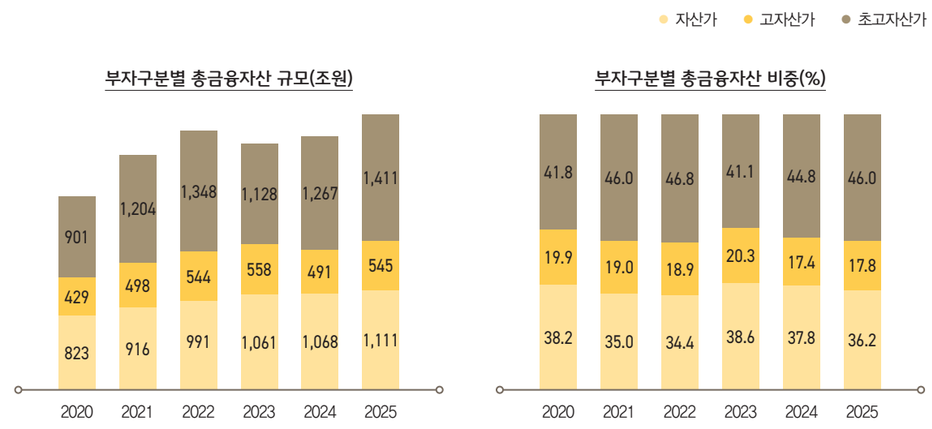
앞서 보유한 총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한국 부자를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눠 부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들의 총금융자산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부자구분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에는 '자산가'의 총금융자산이 823조 원, '고자산가'는 429조 원, '초고자산가'는 901조 원을 기록했으며, 한국 부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2,153조 원) 중 각각 38.2%, 19.9%, 41.8%를 차지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에는 '자산가'의 총금융자산이 1,111조 원, '고자산가'는 545조 원, '초고자산가'는 1,411조 원을 기록했으며, 한국 부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3,066조 원) 중 각각 36.2%, 17.8%, 46.0%를 차지했다.

'자산가'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020년 이후 288조 원이 늘면서 연평균 6.2%, '고자산가'는 116조 원이 늘어 연평균 4.9%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초고자산가'는 같은 기간에 510조 원이 늘면서 연평균 9.4%로 ' 자산가'(연평균 6.2%)와 '고자산가'(연평균 4.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초고자산가의 총금융자산 증가율이 가장 큰 결과는 앞서 살펴 본 부자구분별 한국 부자 수 증가율을 통해서도 예상 가능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 부자 수는 '초고자산가'가 연평균 12.9% 증가한 데 비해 '자산가'는 연평균 5.9%, '고자산가'는 연평균 5.8% 늘었다.

총금융자산 증가율로 볼 때 '초고자산가'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자산가'와 '고자산가'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한국 부자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예상됐다.

그림 8 부자구분별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단위: 조원, %)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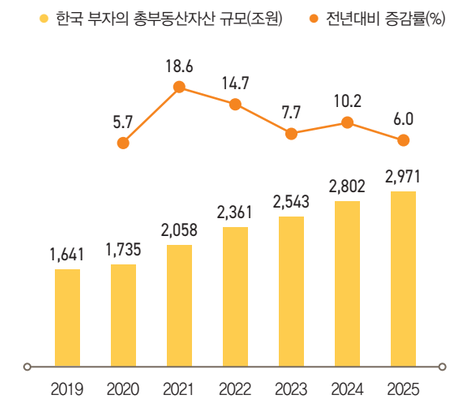
2020년 이후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 성장에도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역할이 컸다

이번에는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명의 부동산자산과 부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부동산자산을 포함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 규모는 추정을 시작한 2019년 1,641조 원에서 2022년 2,361조 원, 2024년 2,802조 원, 2025년 2,971조 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7.2% 증가한 총금융자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19년 이후 한국 부자의 부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 증가 속도가 좀 더 빨랐음을 알 수 있었다.

부자구분별로 살펴보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 규모는 '자산가'가 2020년 976조 원,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합인 '고자산가이상'이 759조 원으로 추정됐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1,735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자산가'가 56.3%, '고자산가이상'이 43.7%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에는 '자산가'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1,493조 원으로 한국 부자 총부동산자산의 50.3%를 차지했고, '고자산가이상'은 1,478조 원으로 한국 부자 총부동산자산의 49.7%를 차지했다. '자산가'의 총부동산자산은 2020년 이후 연평균 8.9% 증가한 데 반해, '고자산가이상'의 총부동산자산은 연평균 14.3%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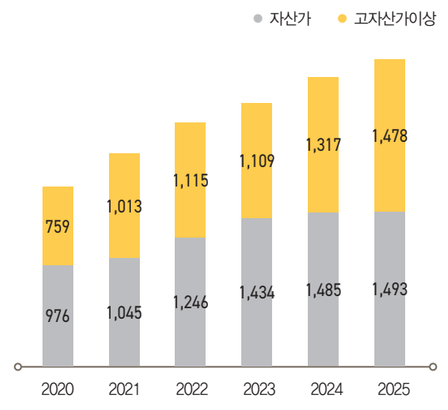
이를 통해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 증가에 고자산가 이상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초고자산가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기인한 총부동산자산 성장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림 9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 추이 (단위: 조원, %)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한국부자의 개인명의 부동산자산과 법인명의 부동산자산 포함

그림 10 부자구분별 총부동산자산 추이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고자산가 이상은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합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줄고, 기타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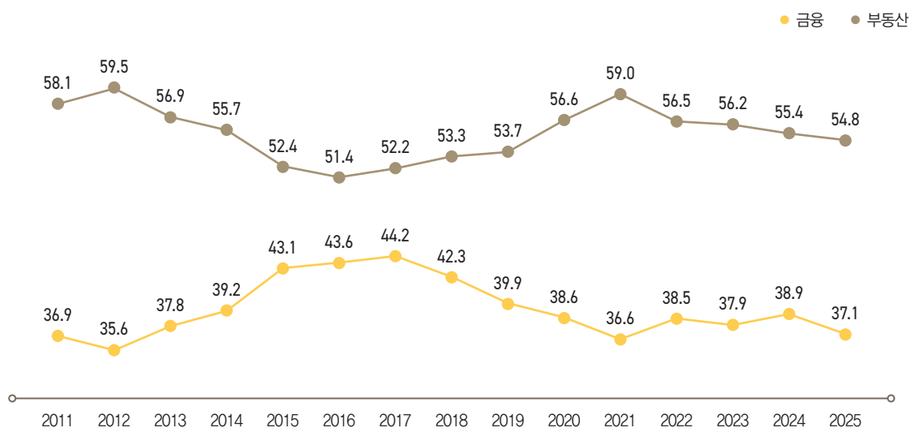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부자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산별 보유 비중을 조사한 후, 그 중간값을 산출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부자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경우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2011년 58.1%와 2012년 59.5%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1~53% 수준으로 비중이 줄었다. 팬데믹 기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비중이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5년에는 총자산의 54.8%를 차지했다.

한편 금융자산의 비중은 총자산의 40%대 초반을 차지한 2015년부터 2018년을 제외하고는 30%대 후반을 유지해 왔다. 2011년 36.9%에서 2012년에 35.6%로 하락했다가 2013년 37.8%, 2014년 39.2%로 소폭 상승하며 30% 후반대를 유지했다. 2015년 43.1%로 크게 상승한 이후 2016년 43.6%, 2017년 44.2%, 2018년 42.3%대로 40%를 유지하다가 2019년 39.9%로 30%대로 다시 하락했으며 2024년 38.9%, 2025년 37.1%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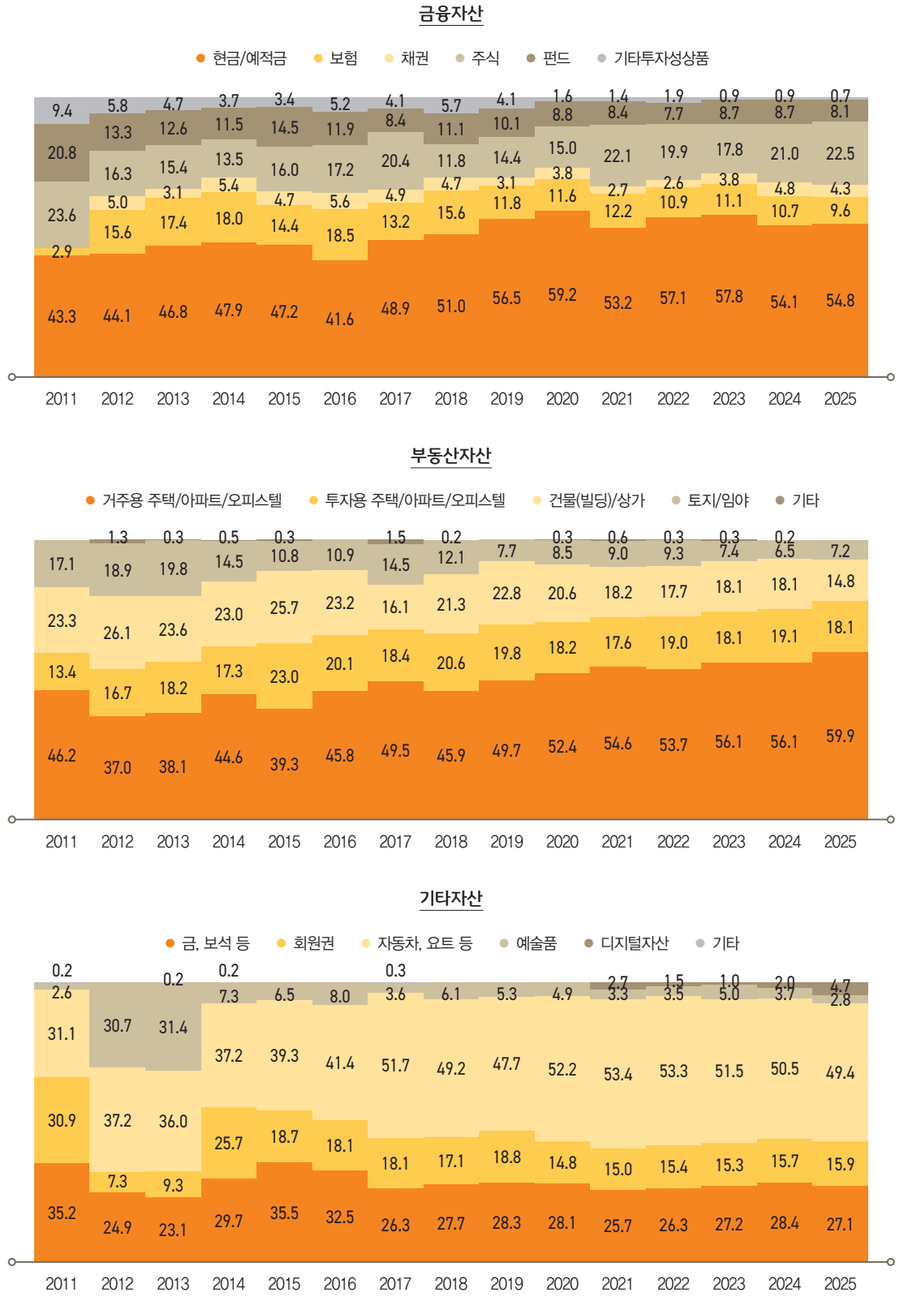
부동산자산 비중과 금융자산 비중의 감소는 기타자산의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금·보석 등 실물자산이나 디지털자산과 같은 대체투자처가 자산관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부자의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11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단위: %)



주) 한국 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산별 비중의 중간값

참고 한국 부자의 자산유형별 세부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단위: %)



주1) 자산별 규모의 평균값 사용 주2) 2011 n=300, 2012~2025 각각 n=400
주3) 기타의 경우 0%의 응답이 대부분으로 상기 제외(단, 2011 0.2%, 2014 0.2%, 2017 0.3%)

03 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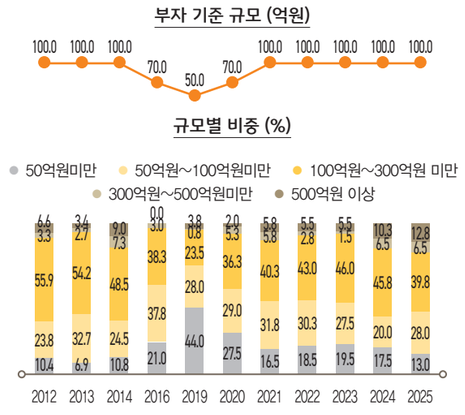
지난 15년 간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누가 부자인가'라고 하면 '고자산가'부터 '마음부자', '행복부자', '배려 부자'까지 다양한 기준에서 넉넉하고 제한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일컫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산의 크기나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넉넉한 사람을 의미한다. 먼저 경제적 안정에 대해 자산 규모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처음 '부자라면 총자산으로 얼마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던 2012년에 한국 부자는 대표성있는 한 개의 숫자(중간값)로 '100억 원'을 꼽았다. 그 후 2016년과 2019년,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억 원'으로 답했다. 한편 부자의 기준에 대해 중간값인 총자산 '100억 원'이 포함된 '100억원~300억원미만'의 응답률은 2012년 55.9%에서 2021년 40.3%, 2025년 39.8%로 감소한데 비해 '500억원이상'의 응답률은 2012년 6.6%, 2021년 5.8%, 2025년 12.8%로 증가하며 향후 기준 자산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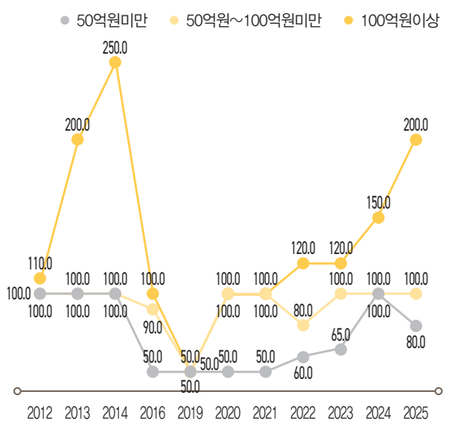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규모에 따른 부자의 자산 기준을 보면, 현재 총자산규모가 '100억원미만'의 부자도,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부자도 '총자산 100억 원'을 기준 자산 규모로 꼽은 경우가 많았다.

그림 12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 금액 (단위: 억원, %)



주1) 부자 기준 금액은 중간값 사용
주2) 각 연도 n=400

그림 13 총자산규모별 부자 기준 금액 (단위: 억원)



주) 응답자수는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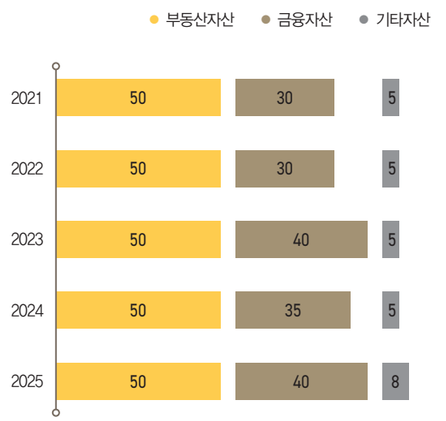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꼽은 부자의 최소 자산 기준은 부동산자산 50억 원, 금융자산 40억 원, 기타자산 8억 원이었다

한국 부자는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산유형별로 '최소 얼마는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최소 '5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고, 2021년 이후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금융자산은 최소 자산 기준이 점차 높아져 2021년과 2022년 '30억 원'에서 2023년 '40억 원', 2024년 '35억 원', 2025년 '40억 원'으로 늘었다. 기타자산은 2021 이후 줄곧 '5억 원'을 유지하다 2025년 '8억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자산 기준은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50억 원'이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에 비해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최소 자산 기준이 점차 상승하는 상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이슈, 국내외 경제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산업 트렌드,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총자산규모별로 부자의 최소 자산 기준에 대해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50억원미만'을 보유한 부자는 부동산자산은 30억 원, 35억 원, 4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상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각각 30억 원과 5억 원이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50억 원이 절대적 기준으로 존재하는 반면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최소 자산 기준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기타자산 모두 상대적 기준이 존재해 투자 환경 변화의 영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림 14 부자의 최소 자산 규모 (단위: 억원)



주) 중간값 기준, 각 연도 n=400

그림 15 부자의 최소 자산 규모(총자산규모별) (단위: 억원)

주) 중간값 기준, 응답자 수는 [붙임1] 참조, 각 연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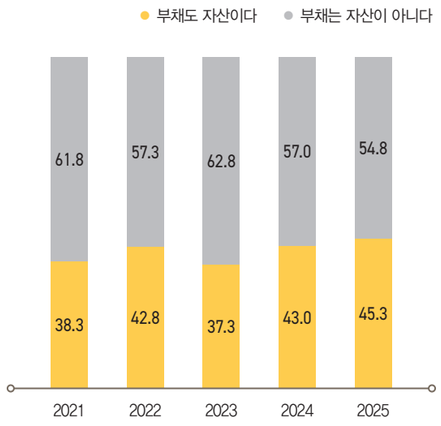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40% 정도가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말에 동의했다

‘부채는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잘 관리된 부채는 자산처럼 작동한다는 의미다. 부채를 활용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부채가 오히려 자산을 늘리는 도구가 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거론한 말이다. 자산 축적과 관리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한국 부자에게 부채의 의미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의 40% 정도가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8.3%, 2022년에 42.8%, 2023년에 37.3%, 2024년에 43.0%, 2025년 45.3%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절반 이상의 한국 부자는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 빚’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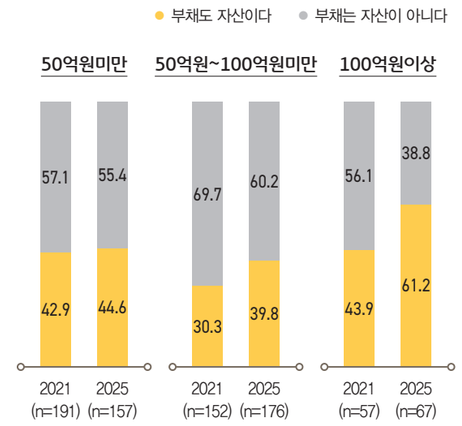
부채에 대한 인식은 현재 보유한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부채는 자산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는 2021년과 2025년에 각각 42.9%, 44.6%가 동의하며 40%대 중반의 동의율을 나타냈다(+1.7%p). 반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을 보유한 부자는 30%대의 동의율을 나타냈는데, 2021년 30.3%에서 2025년 39.8%로 높아졌다(+9.5%p). 한편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2021년 43.9%에서 2025년 61.2%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17.3%p). 세 그룹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래프에는 없으나 2022년 42.9%, 2023년 54.7%, 2024년 61.4%로 동의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6 부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각 연도 n=400

그림 17 부채에 대한 인식(총자산규모별) (단위: %)



주) 응답자 수는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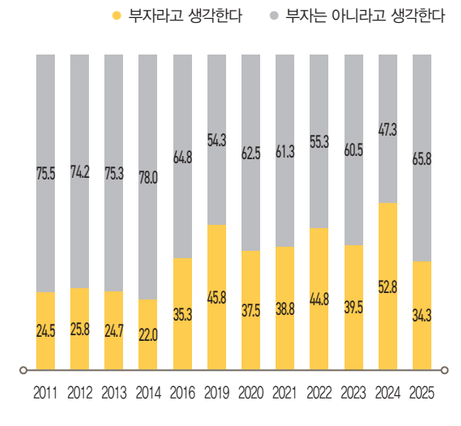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부자 자각도는 2011년 24.5%에서 2015년 34.3%로 높아졌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조사 초기인 2011년에는 응답자의 ¼인 24.5%가 동의했으며, 이후에도 2012년 25.8%, 2013년 24.7%, 2014년 22.0%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 후 2016년 35.3%로 부자 자각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2019년 45.8%, 2022년 44.8%, 2024년 52.8%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다 2025년 34.3%로 크게 낮아져,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이 지난 15년간의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2012년에는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 중 11.0%만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했고,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26.7%,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71.2%가 동의했다. 반면 2025년에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22.3%,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35.2%, ‘100억원이상’ 부자의 59.7%가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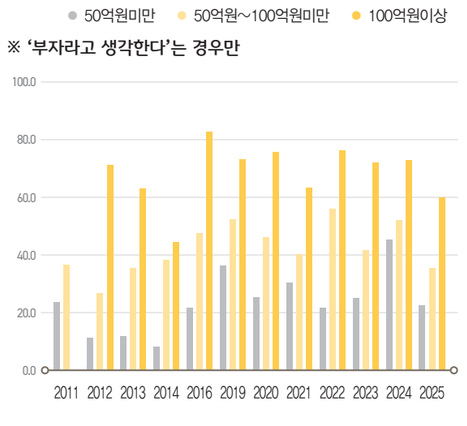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 부자 자각도가 높았다. 이는 앞서 ‘총자산 100억원’을 부자의 자산 기준으로 꼽은 조사 결과와 연결된다. 현재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4분의 3 정도가 스스로 부자라고 자각했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아직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답하며 자산 축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림 18 부자 자각도 추이 (단위: %)



주1) 부자 기준 금액은 중간값 사용
주2) 각 연도 n=400

그림 19 총자산규모별 부자 자각도 추이 (단위: %)



주1) 응답자수는 [붙임1] 참조
주2) 2011년 100억원이상은 n<30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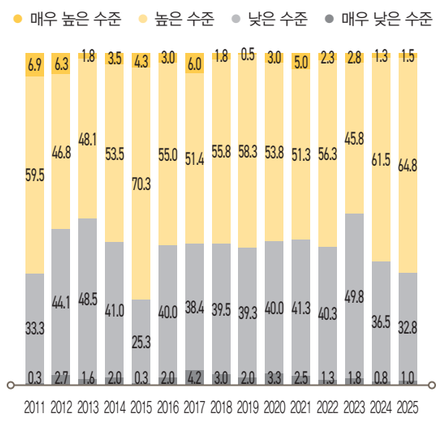
지난 15년 간 한국 부자는 금융투자 시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이번에는 부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금융투자 지식과 성향이 지난 15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인의 금융자산 투자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대체로 본인의 투자 지식이 '높은 수준 이상'('높은 수준'과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이라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낮은 수준'과 '매우 낮은 수준'의 합)라는 의견보다 많아, 금융투자에 대한 부자의 꾸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3년, 2023년 제외). 여기서 '높은 수준'은 '투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매우 높은 수준'은 '전문적으로 분석해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투자 지식에 대한 부자의 자신감('높은 수준 이상' 응답률)은 2022년까지 57%대를 유지하다 팬데믹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2023년 48.5%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5년 66.3%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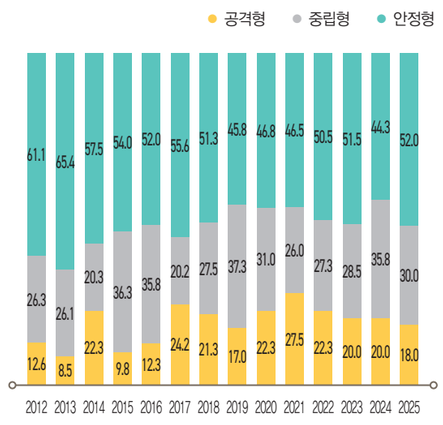
지난 15년간 부자의 금융자산 투자 성향은 '안정형'이 가장 우세했고 이어 '중립형', '공격형' 순이었다. 투자 성향별 비중은 해마다 차이를 보여, 2012년 61.1%에 달했던 '안정형' 성향은 이듬해 65.4%까지 상승했다 점차 하락해 2025년에는 52.0%였다. 반면 2012년 26.3%였던 '중립형' 성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안전 지향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위험·중수익' 트렌드가 부자 사이에서 유행한 2015년과 2016년 30% 중반까지 확대됐고, 이후 30% 내외를 유지했다. 2012년 12.6%에 그쳤던 '공격형' 성향은 팬데믹 기간 유동성 장세 속 공격적 투자가 확대되며 2021년 27.5%까지 상승했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투자 신중론이 확산되며 2025년 18.0%에 머물렀다.

그림 20 금융투자지식 (단위: %)



주) 2011 n=300, 2012~2025 각 연도 n=400

그림 21 금융투자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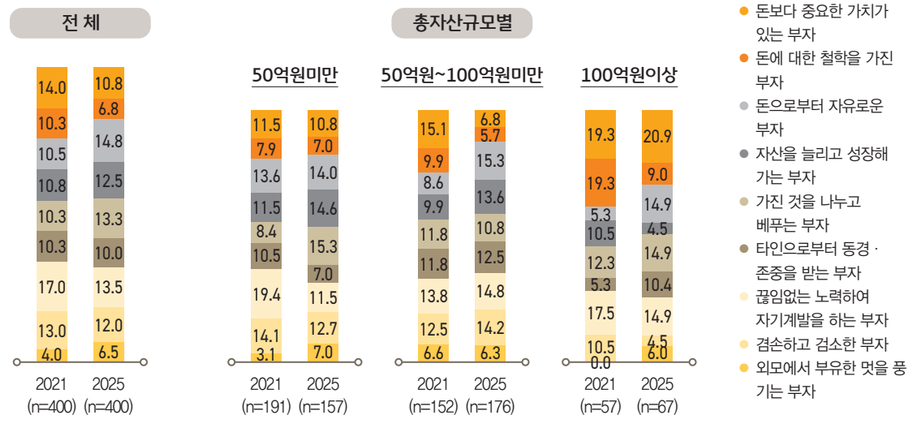
주) 2011 n=300, 2012~2025 각 연도 n=400

한국 부자는 5년 전과 비교해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로 인정받길 바랐다

'부에 대한 인식'의 마지막 항목으로 한국 부자가 그리는 부자의 미래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최근 5년 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부와 관련하여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길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가 시작된 2021년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기계발을 하는 부자'(17.0%)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14.0%), '겸손하고 검소한 부자'(13.0%) 등이 뒤를 이었다. 5년이 지난 2025년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14.8%, 2021년 대비 +4.3%p)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기계발을 하는 부자'(13.5%, -3.5%p),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부자'(13.3%, +3.0%p)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기계발형 부자가 2021년과 2025년 모두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2025년에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가진 것을 베푸는 부자'의 모습을 선호하며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심리적 풍요를 추구하고 있었다.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100억원이상'이 그리는 부자의 미래상 1위는 2021년과 2025년 모두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20.9%, 2021년 대비 +1.6%p)였고, 2021년 공동 1위였던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진 부자'는 2025년 9.0%로 응답률이 대폭 감소했다(-10.3%p).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2025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15.3%, +6.7%p)를 가장 선호했고, 2021년 1위였던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15.1%)는 8.3%p 하락한 6.8%에 그쳤다. 2025년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가 꼽은 부자의 미래상 1위는 2025년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부자'(15.3%, +6.9%p)였고, 2021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던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기계발을 하는 부자'(19.4%)는 11.5%에 그쳤다(-7.9%p).

그림 22 한국 부자가 그리는 부자의 미래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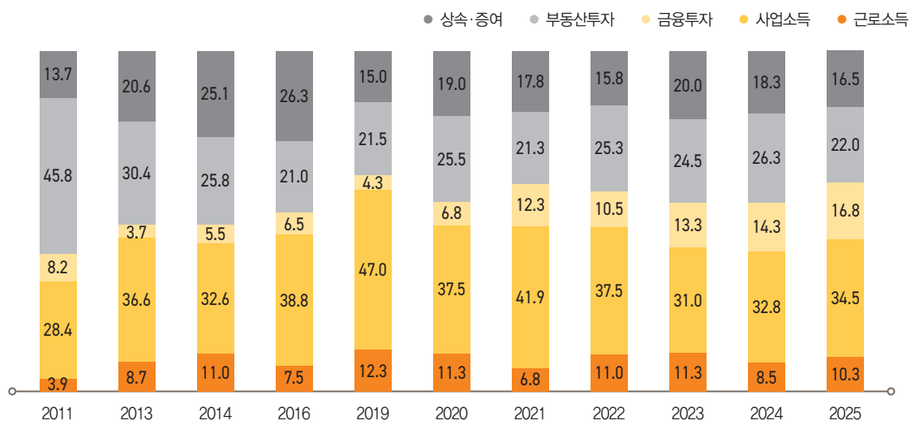
04
부의 축적 기반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투자 이익으로 부를 이룬 경우가 늘었다

한국 부자가 현재 부를 이룬 원천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투자 및 부동산투자 이익, 상속과 증여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한가지 이상의 원천이 존재했다. 본 장에서는 현재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가지 원천을 조사해 지난 15년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25년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룬 주된 원천으로 꼽은 1순위는 '사업소득'(34.5%)이었고, 다음으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22.0%),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16.8%), '상속·증여'(16.5%), '근로소득'(10.3%)의 순이었다. 반면 2011년에 1순위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5.8%가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꼽았고, '사업소득'(28.4%), '상속·증여'(13.7%),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8.2%), '근로소득'(3.9%)이 차순위에 올라 부동산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룬 원천에 변화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의 원천 1순위가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에서 '사업소득'으로 옮겨갔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으로 부를 늘린 경우가 증가한 반면, '부동산투자'와 '상속·증여'로 부를 늘린 경우는 줄었다.

그림 23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룬 원천 (단위: %)



주) 2011 n=300, 2012~2025 각 연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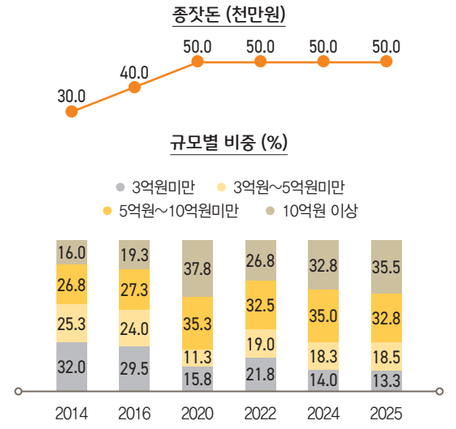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종잣돈은 2020년 이후 5억 원을 유지했다

'종잣돈'은 미래의 더 큰 자산을 만드는 밑천으로,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돈' 또는 자산 성장을 위한 '씨앗 자본'이라는 뜻이다. '종잣돈'의 크기는 나이, 소득, 지출, 경제 환경,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국 부자가 현재의 부를 이루는 데 사용한 종잣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다.

한국 부자의 종잣돈은 2014년에는 '3억 원'에서 2016년 '4억 원', 2020년 이후 '5억 원'으로 점차 상승했다(중간값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경제 성장률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종잣돈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종잣돈 규모별로는 2014년 이후 '5억원이상'('5억원~10억원미만'과 '10억원이상'의 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한 반면 '5억원미만'('3억원미만'과 '3억원~5억원미만'의 합)의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 '3억원미만'으로 응답한 한국 부자는 2014년에 32.0%, 2020년 15.8%, 2025년 13.3%로 점차 감소했고, '3억원~5억원미만'의 응답률은 2014년 25.3%, 2020년 11.3%, 2025년 18.5%로 감소했다. 반면 '5억원~10억원미만'의 응답률은 2014년 26.8%, 2020년 35.3%, 2025년 32.8%로 대체로 증가했으며, '10억원이상'의 응답률은 2014년 16.0%에서 2020년 37.8%, 2025년 35.5%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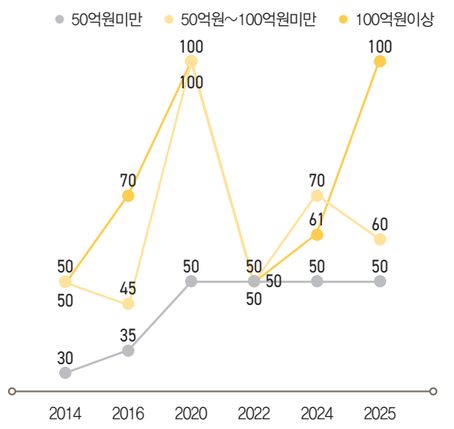
총자산규모별로도 종잣돈 규모의 차이가 컸다. '총자산 50억원미만'을 보유한 부자는 2014년에 '3억 원'에서 2025년 '5억 원'으로 종잣돈이 늘어난 반면, '총자산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10억 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24 한국 부자의 종잣돈 추이 (단위: 천만원, %)



주) 중간값, 각 연도 n=400

그림 25 총자산규모별 종잣돈 규모 추이 (단위: 천만원)



주) 중간값, 응답자수는 [붙임1] 참조

한국 부자의 자산 축적 목표액은 2011년 평균 75억 원에서 2025년 152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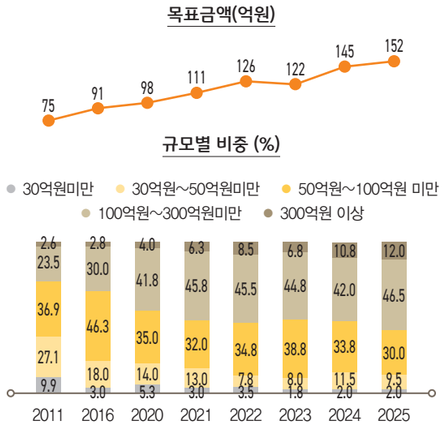
돈을 모을 때 '목표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행동적 동기를 자극하는 요소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될 때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막연히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보다는 '1억 원 모으기'와 같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면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생한다.

한국 부자에게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지와 함께 얼마를 목표액으로 삼고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한국 부자가 설정한 자산 축적의 목표액은 조사를 시작한 2011년 평균 '75억 원'에서 2025년 평균 '152억 원'으로 지난 15년간 점차 증가해 왔다. 목표액 규모별로는 '100억원이상'을 꼽은 부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예상이 가능했다. 2011년 '100억원~300억원미만'을 꼽은 부자가 23.5%, '300억원이상'을 꼽은 부자가 2.6%였다면 2025년에는 각각 46.5%, 12.0%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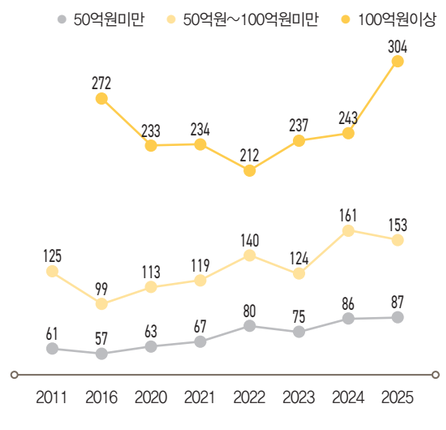
현재 보유한 총자산규모별로 자산 축적의 목표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2016년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목표액은 평균 272억 원으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목표액(평균 57억 원)에 비해 4.8배,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목표액(평균 99억 원)에 비해 2.8배 높았다. 한편 2025년에는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목표액이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목표액보다 2.0배 높았고, '50억원미만' 부자의 목표액보다 3.5배 높아 한국 부자 간 자산 축적의 목표액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었다. (2011년에도 목표액을 조사했으나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응답자수(n<30)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림 26 부자의 자산 축적 목표액 (단위: 억원, %)



주) 평균값, 2011 n=300, 2016 이후 각 연도 n=400

그림 27 부자의 자산 축적 목표액(총자산규모별) (단위: 억원)



주1) 평균값, 2011년은 100억원이상 응답자가 n<30으로 제외
주2) 응답자수는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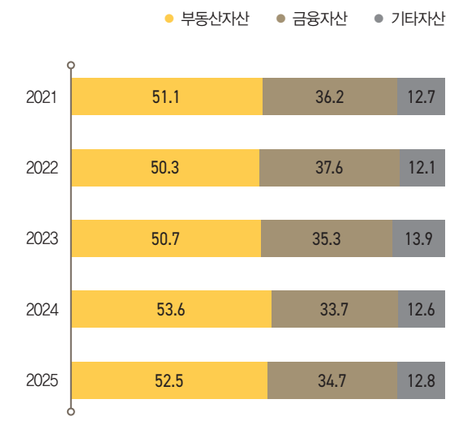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 금융자산 3.5, 기타자산 1.5였다

앞서 한국 부자의 자산 축적 목표액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산의 규모를 파악한 데 이어,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 축적의 세부 달성 방향과 연도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조사가 시작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부자는 자산의 절반 가량을 부동산자산으로, 3분의 1을 금융자산으로, 나머지를 금·보석, 예술품, 가상자산 등의 기타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부동산자산 51.1%, 금융자산 36.2%, 기타자산 12.7%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2025년에도 부동산자산 52.5%, 금융자산 34.7%, 기타자산 12.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앞서 살펴본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자산이 54.8%, 금융자산이 37.1%였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자산규모별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체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컸고, 이 경향은 최근 5년간 변함이 없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금융자산 비중이 줄고(2025년 29.6%, 2021년 대비 -5.9%p) 부동산자산 비중이 늘었으며(2025년 57.6%, 2021년 대비 +5.0%p),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자산 비율'은 2021년 1.5배에서 2025년 1.9배까지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자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동산을 여전히 핵심 자산으로 선호하며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025년 부동산자산 비중은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57.6% vs. '50억원미만' 부자의 48.8%).

그림 28 부자의 이상적 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주) 각 연도 n=400

그림 29 부자의 이상적 자산 포트폴리오(총자산규모별) (단위: %)

주) 응답자 수는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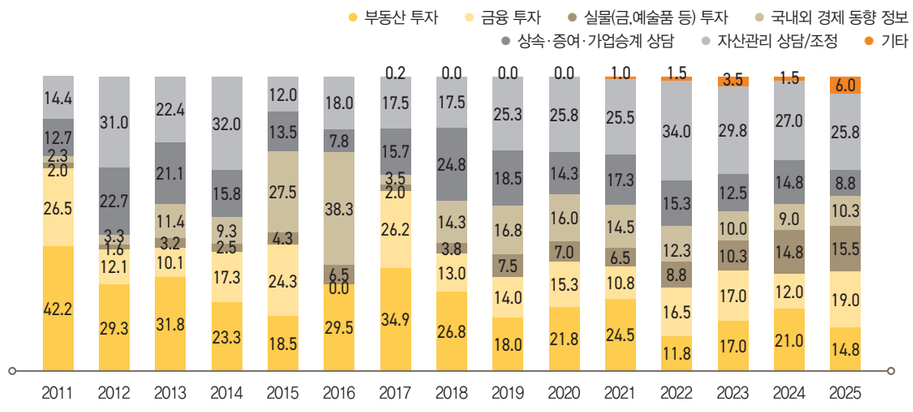
05
부 축적의 노하우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 대세론에서 금융투자, 실물투자, 리밸런싱, 가상자산까지 점차 다양화됐다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한 방법을 알아보는 첫걸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자산관리를 해 왔는가'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와 관련해 어떤 관심사를 가졌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난 15년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투자에서 금융투자와 금·예술품 등 실물투자나 디지털자산 등의 대체투자로 관심사가 확대됐고, 투자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자산관리 상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11년 조사에서는 '부동산투자'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가 42.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 18.5%, 2020년 21.8%, 2025년 14.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는 2011년 2.0%에서 2015년 4.3%, 2020년 7.0%, 2025년 15.5%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외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도 2011년 2.3%에서 2025년 10.3%로 높아졌으며, 자산 리밸런싱이나 자산관리를 위한 상담, 가상자산을 포함한 기타자산 투자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다.

그림 30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 (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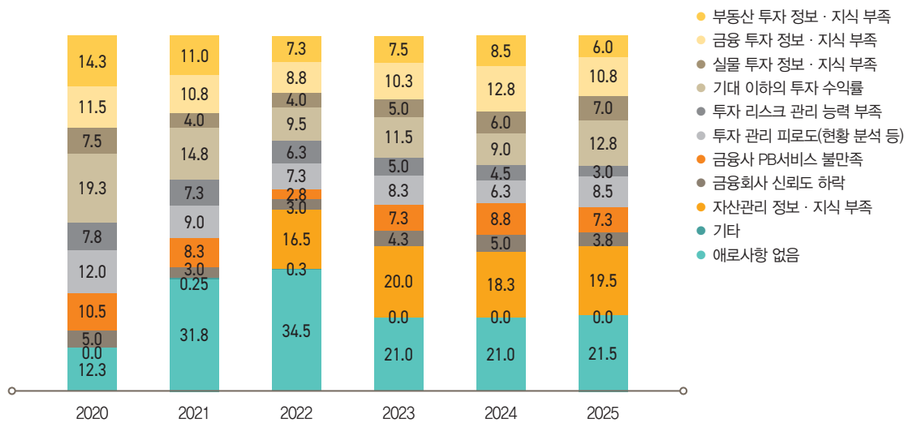
주1) 기타에는 해외 이민, 가상자산 투자 등 포함
주2) 2011 n=300, 2012~2025 각 연도 n=400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 시 꾸준히 느껴 온 어려움은 '자산관리 정보·지식 부족'과 '기대 이하의 투자 수익률'이었다

다음으로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난 15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산관리 시 느낀 '애로사항이 없다'라는 응답률은 2022년 34.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1%대를 유지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부자가 꼽은 자산관리의 어려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식, 채권 그리고 원유와 금 등 원자재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 2020년과 2021년에는 '기대 이하의 투자 수익률'이 각각 19.3%, 14.8%로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이후에는 상속·증여, 세금, 법률 이슈 등 '자산관리 정보·지식 부족'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해(2022년 16.5%, 2023년 20.0%, 2024년 18.3%, 2025년 19.5%), 한국 부자가 실질적인 투자 정보와 성과 외에도 자산을 유지·증식·이전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2021년까지 1위를 차지했던 '기대 이하의 투자 수익률' 역시 2022년 이후에도 2~3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 정보·지식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자산관리 관심사 추이와 유사하게 2020년 14.3%에서 점차 감소해 2025년 6.0%에 그쳤고, '금융 투자 정보·지식 부족'은 꾸준히 10% 수준을 기록했다. 금·보석,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 정보·지식 부족'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금 시세가 급등했던 2020년(7.5%)에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은 등의 안전자산이 재조명을 받으며 관련 정보·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자가 소폭 늘었다(2024년 6.0%, 2025년 7.0%).

그림 31 한국 부자가 느끼는 자산관리 애로사항 (1순위, 단위: %)



주) 기타자산에는 금 · 보석, 예술품, 가상자산 등 포함

한국 부자는 수익을 예상하는 단기 투자처로 기타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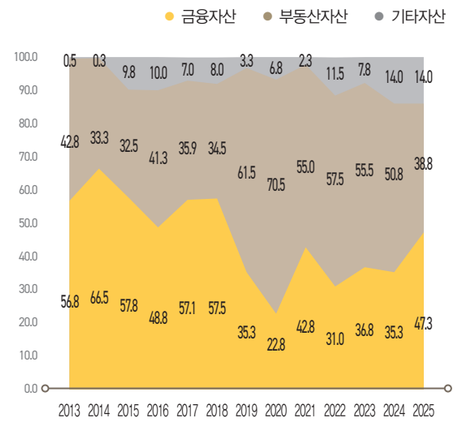
앞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사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로 어디에 투자해 왔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단기 투자처를 중심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12년간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부자의 단기 투자처로서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자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증가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산관리 관심사에서 '금·보석, 예술품 등의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기타자산 투자에서는 최근 들어 '금·보석'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은 조사를 시작한 2021년에 0.8%에서 2023년 1.3%, 2025년 4.3%로 절대 비중은 작으나 증가폭이 컸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보석'은 2013년 0.2%에서 2018년 8.0%, 2020년 6.8%, 2025년 9.0%로 한국 부자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금값이 치솟던 2024년 12.3%로 전년(5.5%)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나 2025년에는 9.0%로 주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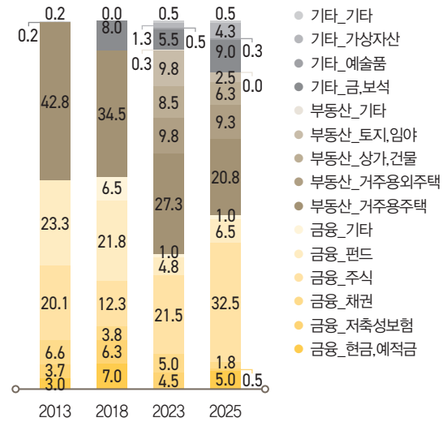
부동산 투자에서는 '거주용 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용 외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임야' 등에서는 단기 수익을 예상하지 않았다. 금융 투자에서는 단기 투자처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었으나, '펀드'와 '채권'에 대한 단기투자처로의 기대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32 수익을 예상하는 단기 투자처 (단위: %)



주) 각 연도 n=400

그림 33 수익을 예상하는 단기투자처(자산유형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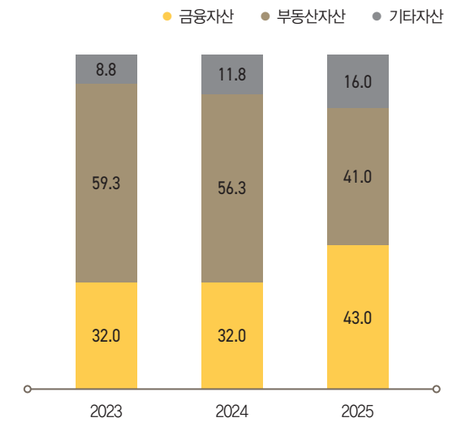
주) 각 연도 n=400

중장기투자처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반면 '기타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한국 부자가 향후 3~5년을 내다보며 투자를 할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조사를 시작한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 한국 부자는 중장기 투자처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하고 '금융상품'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부자 10명 중 6명(59.3%)은 향후 3~5년 이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예상했고 이어 '금융 투자'(32.0%), '기타자산 투자'(8.8%) 순이었으나, 2025년에는 '금융 투자'(43.0%), '부동산 투자'(41.0%), '기타자산 투자'(16.0%)의 순으로 고수익을 예상했다. 기타자산의 경우 2024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하락 부분을 흡수하여 2025년에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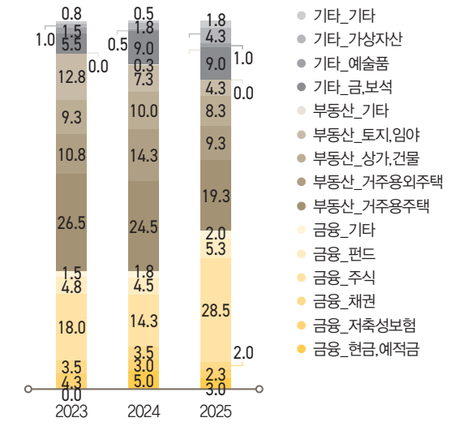
자산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장기 투자처로 2023년 1위를 차지한 '거주용 주택'(26.5%)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2025년 19.3%로 감소하며 2위로 밀려났고, 2023년 2위를 차지한 '주식'(18.0%)은 2022년 이후 이어져 온 주식 강세장에 힘입어 2025년 1위로 올라섰다(28.5%).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기와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져 온 가운데 '거주용 외 주택', '상가·건물', '토지·임야'와 같은 거주용 외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역시 최근 3년 간 하락해 왔다. 반면 단기 투자처과 유사하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금·보석'과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3년간 각각 약 2배, 4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림 34 수익을 예상하는 중장기투자처 (단위: %)



주) 각 연도 n=400

그림 35 수익을 예상하는 중장기투자처(자산유형별) (단위: %)



주) 각 연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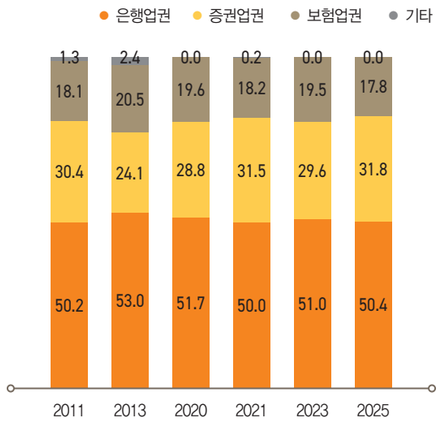
과거 15년 간 한국 부자의 업권별 포트폴리오는 은행, 증권, 보험이 5대 3대 2를 유지했다

앞서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상품별 투자 비중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업권별 포트폴리오를 자산 예치 비중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부자의 금융업권별 자산 예치 비중은 은행업권, 증권업권, 보험업권(보장성보험 납입액 제외) 순으로 지난 15년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조사가 시작된 2011년에는 은행업권·증권업권·보험업권에 각각 금융자산의 50.2%, 30.4%, 18.1%를 예치하고 있었다. 2년 후인 2013년에는 자산 예치 비중이 은행업권은 53.0%로 2011년 대비 2.8%p 증가했고, 증권업권은 24.1%로 2011년 대비 6.3%p 감소했으며, 보험업권은 20.5%로 2.4%p 증가했다. 이는 2012년부터 은행업권의 은퇴·노후 설계 브랜드 론칭이 이어지며(2012년 KB국민은행, 2014년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고령화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의 자산 예치 비중 증가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증권업권은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로 부자들의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부응하면서 예치 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 31.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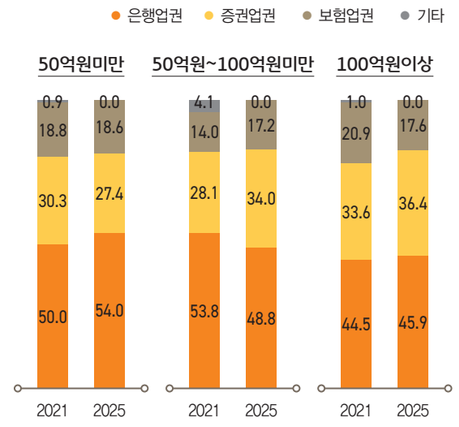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 그룹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은행업권 예치 비중은 2011년 대비 줄어든(-5.0%p) 반면, 증권업권과 보험업권은 각각 5.9%p, 3.2%p 늘었다. 금융업권별 포트폴리오도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자산이 많을수록 은행업권의 예치 비중은 감소하고 증권업권의 예치 비중은 증가했다.

그림 36 금융자산의 금융업권별 포트폴리오 (단위: %)



주) 2011 n=300, 2013~2025 각 연도 n=400

그림 37 금융자산의 금융업권별 포트폴리오(총자산규모별) (단위: %)



주) 응답자수는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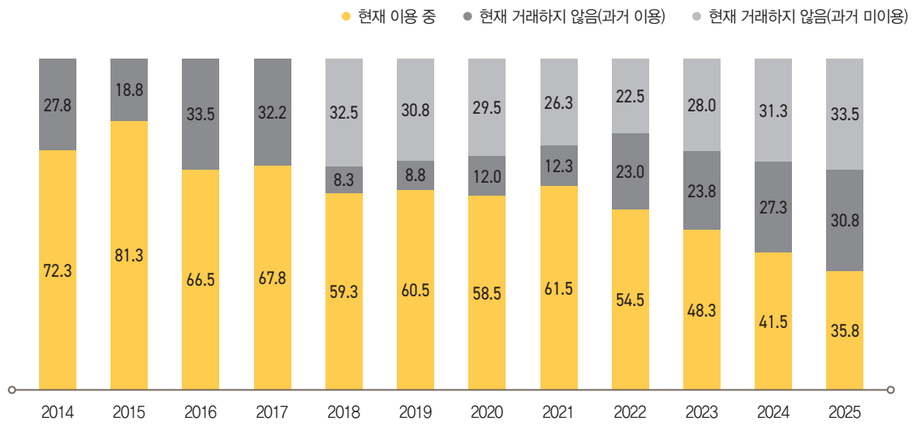
팬데믹 기간 주체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대중화되며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경향은 주체적인 성향이 늘었다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보여온 금융권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PB서비스 포함, 모바일서비스 불포함) 이용 현황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5까지 12년간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금융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자는 2014년 72.3%에서 2015년 81.3%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낮아져 2025년 35.8%를 기록했다(2014년 대비 -36.5%p).

반면 금융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자는 2014년 27.8%에서 2017년 32.2%로 증가했다. 현재 금융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부자에게 과거 이용 여부를 추가 조사한 결과 2018년에는 현재 미이용자(40.8%) 중 '과거에도 이용하지 않은 부자'(32.5%)가 '과거에는 이용한 부자'(8.3%)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부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25년에는 64.3%에 달했다. 이중 '과거에도 이용하지 않은 부자'(33.5%)는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과거에는 이용한 부자'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점차 증가해(2022년 23.0%, 전년 대비 +10.7%p) 2025년 30.8%까지 높아졌다.

2025년 설문조사에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로 '특별한 이유 없음'(23.6%)과 '스스로 하는 것이 편해서'(15.4%)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률 감소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금융 부문의 디지털 플랫폼 보급, 생성형AI 기반 자산관리를 통한 개인화·맞춤화 서비스 확산 등으로 부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여건이 향상되면서 주체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대중화되는 현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8 한국 부자의 금융권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주) 각 연도 n=400

06
부자의 자산관리 철학

부의 축적 과정에서 한국 부자가 큰 손실을 경험한 시기는 금융위기 직후 '2010~2014년'과 팬데믹 정점 '2020년'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부자가 자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부의 원천과 자산관리 노하우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부 축적을 위한 노력과 가치관부터 미래의 부자를 위한 조언까지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철학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부자들도 부의 축적 과정에서 손실을 경험했다. 이를 오히려 자산 축적의 기회로 삼은 한국 부자가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가장 큰 손실을 본 시점을 자산별로 질문해 보았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의 손실 경험률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여, 사회·문화·경제·금융 환경이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부자는 모든 자산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4년과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자산 버블 붕괴가 겹친 2020년 가장 큰 손실을 경험했고 부동산자산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24년 손실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손실 시점에 영향을 미친 이슈는 자산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금융자산의 경우 기준금리 조정과 같은 '거시경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영향이 가장 컸다. 손실 경험률이 높은 두 시점인 2010~2014년에는 '기준금리 인상'(26%)과 '부동산 규제 심화'(23%), '물가 상승'(19%)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천재지변'(39%)과 '자산 가치 하락'(14%), '환율 하락'(14%)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투자시장', 부동산 규제 심화 등의 '정부정책'이 손실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 조사됐다. 2010~2014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28%)과 '지정학적 리스크'(24%) 등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천재지변'(36%), '지정학적 리스크'(15%), '금융 사건/사고'(15%), 규제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심화'(14%) 등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손실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27%)과 '물가 상승'(22%), '부동산 규제 심화'(16%) 등이 있었다. 기타자산 손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투자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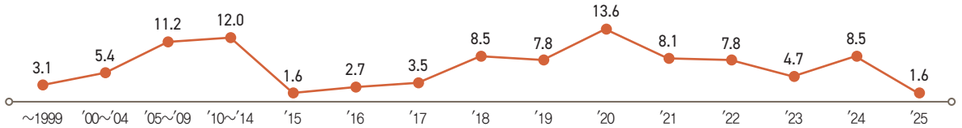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2010~2014년 '자산 가치 하락'(30%)과 '지정학적 리스크'(27%) 등의 이슈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천재지변'(37%)과 '자산 가치 하락'(24%)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답했다.

그림 39 자산유형별 손실 시점과 관련 이슈 (복수응답, 단위:%)

● 거시경제 ● 투자시장 ● 정부정책 ● 국내사회 ● 글로벌

금융자산

※손실을 본 응답자만(n=116, 전체의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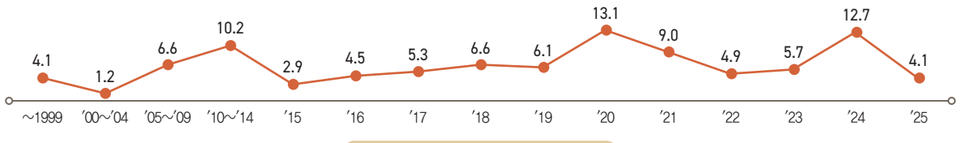


금융자산 손실의 상위 7개 이슈

~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2		2023~2025	
기준금리 인하	25%	금융 사건·사고	36%	글로벌 금융 위기	45%	기준금리 인상	26%	글로벌 금융 위기	19%	천재지변	39%	물가 상승	32%
글로벌 금융 위기	25%	글로벌 금융 위기	21%	금융 사건·사고	34%	부동산 규제 심화	23%	기준금리 인상	16%	자산 가치 하락	14%	지정학적 리스크	26%
자산 가치 하락	25%	물가 상승	21%	금융 규제 심화	24%	물가 상승	19%	금융 규제 완화	16%	환율 하락	14%	부동산 가격 하락	24%
금융 규제 심화	25%	부동산 가격 하락	21%	정치 불안정	21%	물가 하락	16%	정치 불안정	16%	물가 상승	14%	기준금리 인하	18%
물가 상승	13%	정치적 불안정	21%	천재지변	21%	부동산 가격 하락	16%	주식장 하락	16%	부동산 가격 하락	13%	자산 가치 상승	18%
기준금리 인상	13%	지정학적 리스크	21%	부동산 규제 심화	21%	기준금리 인하	16%	자산 가치 하락	15%	지정학적 리스크	12%	기준금리 인상	13%
환율 상승	13%	자산 가치 하락	14%	물가 상승	17%	환율 하락	13%	주식장 상승	15%	금융 사건·사고	12%	주식장 하락	11%

부동산자산

※손실을 본 응답자만(n=88, 전체의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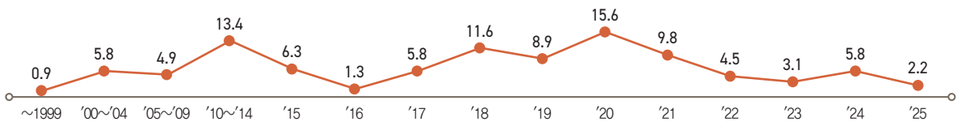


부동산자산 손실의 상위 7개 이슈

~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2		2023~2025	
부동산 가격 하락	40%	부동산 가격 하락	50%	지정학적 리스크	56%	부동산 가격 하락	28%	부동산 규제 심화	27%	천재지변	36%	부동산 가격 하락	27%
자산 가치 하락	20%	부동산 규제 심화	30%	부동산 규제 심화	44%	지정학적 리스크	24%	부동산 가격 하락	21%	지정학적 리스크	15%	물가 상승	22%
기준금리 인상	10%	자산 가치 하락	20%	금융 규제 심화	44%	기준금리 인상	20%	물가 상승	18%	금융 사건·사고	15%	부동산 규제 심화	16%
환율 상승	10%	정치·경제 이슈	20%	글로벌 금융 위기	44%	GDP 하락	20%	금융 규제 심화	15%	부동산 규제 심화	14%	기준금리 인상	16%
글로벌 금융 위기	10%	물가 상승	20%	정치·경제 이슈	38%	자산 가치 하락	20%	물가 하락	15%	부동산 가격 하락	14%	자산 가치 하락	15%
지역 발전	10%	GDP 상승	20%	천재지변	38%	부동산 규제 심화	16%	환율 상승	13%	정치 불안정	12%	부동산 가격 상승	13%
기술 혁신/발전	10%	기준금리 인상	10%	금융 사건·사고	31%	지역 발전	16%	자산 가치 하락	13%			정치 불안정	13%

기타자산

※손실을 본 응답자만(n=48, 전체의 12.0%)



기타자산 손실의 상위 7개 이슈

~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2		2023~2025	
기준금리 인하	50%	천재지변	38%	자산 가치 하락	36%	자산 가치 하락	30%	자산 가치 하락	28%	천재지변	37%	환율 하락	32%
물가 상승	50%	금융 사건·사고	31%	부동산 가격 하락	18%	지정학적 리스크	27%	부동산 가격 하락	20%	자산 가치 하락	24%	정치 불안정	24%
부동산 가격 하락	50%	정치 불안정	23%	新 투자 유행	18%	금융 사건·사고	23%	금융 사건·사고	12%	금융 사건·사고	15%	지정학적 리스크	20%
자산 가치 하락	50%	지정학적 리스크	23%	금융 사건·사고	18%	글로벌 금융 위기	23%	글로벌 금융 위기	12%	부동산 가격 하락	13%	정치·경제 이슈	20%
부동산 규제 완화	50%	정 치·경제 이슈	23%	지정학적 리스크	18%	부동산 규제 심화	23%	금융 규제 심화	11%	주식장 하락	10%	기술 혁신/발전	20%
정치 불안정	50%	글로벌 금융 위기	23%	글로벌 금융 위기	18%	물가 상승	20%			부동산 규제 심화	10%	부동산 규제 심화	16%
지정학적 리스크	50%	기준금리 인상	23%	기준금리 인상	18%	천재지변	20%			물가 상승	10%	물가 상승	16%

부자가 전하는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의 1순위는 지속적으로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한국 부자에게 오랫동안 투자와 자산관리를 해오면서 얻은 인상 깊은 경험이나 교훈을 질문해 보았다. 부자가 꼽은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1순위는 경제 및 투자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지식을 습득해야 한다'(15.0%)는 점이었다. 한국 부자는 부의 축적을 위해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항목을 1순위로 선택한 부자는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19.4%를 차지한 데 비해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14.2%, '50억원미만' 부자의 14.0%로 자산규모가 적을수록 비중이 낮았다. 차순위로는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분산투자'(14.5%)를, 3순위로는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구비'(13.5%)를 꼽았다. 이 외에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12.8%)이나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 설정'(11.8%), '시장 변동성 인식과 대응 능력 구축'(11.3%), '위기 상황을 자산 축적의 기회로 삼는 안목'(11.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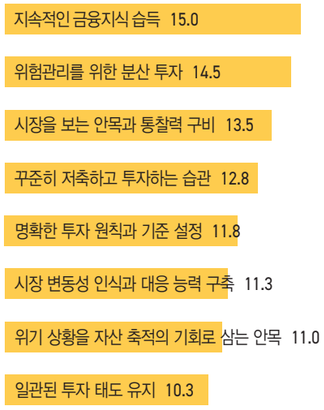
총자산규모별로도 한국 부자의 생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총자산 50억원미만'을 보유한 부자는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16.6%)와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 설정'(16.6%)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다음으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14.0%),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14.0%)의 순이었다. 반면 '50억원~100억원미만'을 보유한 부자는 1순위로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구비'(14.8%)를 꼽아 이를 6순위로 선택한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와 견해 차이를 보였다. 차순위로는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14.2%),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13.6%)을 꼽았다.

한편 '총자산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다른 두 그룹과 전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1순위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19.4%)을 꼽았으며, '일관된 투자 태도 유지'(17.9%)와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구비'(16.4%)가 뒤를 이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가 2순위로 꼽았던 '일관된 투자 태도 유지'의 경우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와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최하위인 8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좀더 심도 깊은 의견을 파악하고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를 대상으로 개인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금융자산 70억 원을 보유한 60대 남성은 "수익이 1~10으로 나뉜다면, 9~10은 절대 선택하지 말고 중간인 4~5를 선택하자. 세상에 공짜는 부모님을 빼고는 없다고 주변에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며 손익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달걀을 나눠 담아야지, 모두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돼요. 만약 한군데 많은 돈을 투자해 물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라며 위험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 "경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봐도 될 것 같아요"(금융자산 20억 원, 60대 여성)나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공부를 해서 공격적 투자를 해보자"(금융자산 10억원, 40대 여성)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습득해야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하면서 얻은 인상 깊은 경험이나 교훈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이면서도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이를 위해 금융지식 습득과 나만의 투자 원칙 수립, 분산 투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40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단위: %)



주) 2025년 기준, n=400

그림 41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총자산규모별) (단위: %)

	50억원미만	50~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	14.0	14.2	19.4
위험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	16.6	13.1	13.4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구비	10.8	14.8	16.4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	14.0	13.6	7.5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 설정	16.6	9.7	6.0
시장 변동성 인식과 대응 능력 구축	11.5	12.5	7.5
위기 상황을 자산 축적의 기회로 삼는 안목	8.3	13.1	11.9
일관된 투자 태도 유지	8.3	9.1	17.9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 157, 50~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그림 42 한국 부자가 전하는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나만의 수익/손실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투자해보니 너무 욕심내지말고 수익은 20%, 손실은 10%까지는 넘어가자." 60대 여성, 금융자산 20억원

"수익을 1~10으로 나눈다면, 9~10은 절대 선택하지 말고, 중간인 4~5를 선택하자. 세상에 공짜는 부모님을 빼고 없다고 주변에도 이야기합니다" 60대 남성, 금융자산 70억원

내가 확신하는 것만 투자한다

"혹시나 모르는 투자를 해야한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해요. 손실이 났을 때, 투자의 칼자루를 본인이 쥐고 흔들 수 있어야 해요." 50대 남성, 금융자산 30억원

"내가 잘 할 수 있는것, 내가 잘 아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지. 누가 한다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40대 남성, 금융자산 10억원

분산 투자는 필수로 한다

"달걀은 나눠 담아야지, 모두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돼요. 만약 한군데 많은 돈을 투자해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0대 남성, 금융자산 70억원

"책을 읽다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하지만 부동산 투자까지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거죠." 50대 남성, 금융자산 30억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공부를 해서 공격적 투자를 해보자." 40대 여성, 금융자산 10억원

"경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봐야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60대 여성, 금융자산 20억원

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대상 개인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결과

현재의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전하는 자산관리 팁은 '장기적' 관점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직접 투자해 볼 것'이었다

앞서 한국 부자가 투자와 자산관리 과정에서 얻은 인상 깊은 경험이나 교훈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전 자산관리 팁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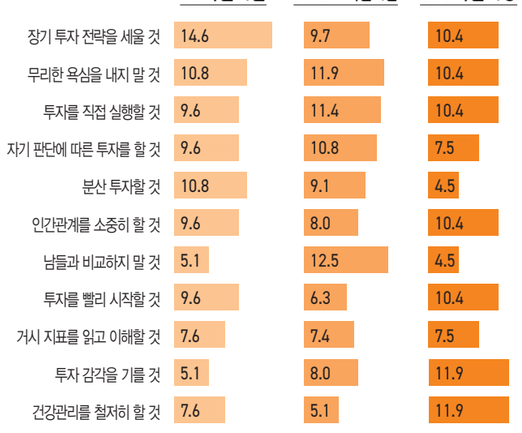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전하는 자산관리 팁 1위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것'(11.8%)으로 한 방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다음으로 과도한 투자나 레버리지 등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 것'(11.3%), 정보를 찾기만 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실행할 것'(10.5%),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 '내 판단에 따른 투자를 할 것'(9.8%) 등이 뒤를 이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한군데 집중 투자하기보다 '분산 투자할 것'(9.0%)과 '주변 인간관계를 소중히 할 것'(9.0%), '남들과 비교하지 말 것'(8.3%), '투자를 빨리 시작할 것'(8.3%), '거시 지표를 읽고 이해할 것'(7.5%), '투자 감각을 기를 것'(7.5%),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것'(7.3%) 등의 의견이 있었다.

총자산규모에 따라 한국 부자가 전하는 자산관리 팁도 차이를 보여, '총자산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투자 감각을 기를 것'(11.9%)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것'(11.9%)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 것'(12.5%)을, '50억원미만'의 부자는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1순위로 꼽고 있었다.

그림 43 부자가 전하는 자산관리 팁 (단위: %)

주) 2025년 기준, n=400

그림 44 부자가 전하는 자산관리 팁(총자산규모별) (단위: %)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 157, 50~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부자가 들려준 생생한 자산관리 팁은 '#1억모으기 #티끌모아투자 #내돈은내가 #과하지않게'였다

자산관리 팁에 대해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기 위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를 대상으로 개인심층인터뷰(IDI)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40대 남성은 젊은 나이부터 '투자를 빨리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욜로(YOLO)나 현재를 즐기기보다 그 돈을 아껴 1~2억 원만 모아도 자산을 불릴 기회가 생겨요..."라고 말하며 '월급을 아낄 것'을 제안했다. 금융자산 10 억 원을 보유한 40대 여성은 "무조건 절약하기보다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 감각을 기를 것'을 주문했고, 금융자산 20억 원을 보유한 60대 여성은 "PB 추천으로 상품을 가입하고 수익·손실을 봐도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주체적으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며 '자기 판단에 따른 투자를 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자산 30억 원을 보유한 60대 여성은 "허황된 것을 쫓지 말고 과하지 않게,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며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 것'을 언급했다. 그 밖에 "시간 약속과 돈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할 것'을 당부한 60대 남성(금융자산 70억 원), "돈을 벌려면 자기 몸이 조금 힘들어야 해요"라며 '투자를 직접 실행할 것'을 권고한 50대 남성(금융자산 30억 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45 한국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전하는 자산관리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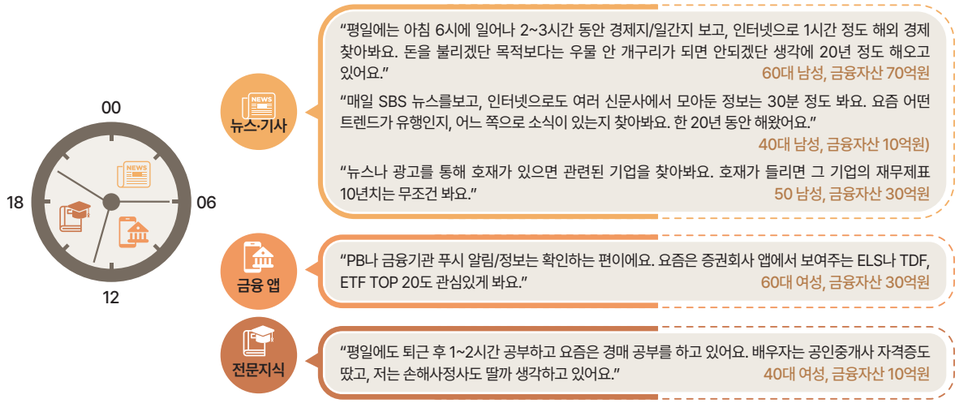
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대상 개인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결과

부자는 일정 시간에 경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자산관리 지식을 습득하는 루틴을 실천했다

한국 부자의 투자·자산관리 정보 탐색을 위한 하루 루틴과 지식 습득 행태를 개인심층인터뷰(IDI)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뉴스·기사'를 통해 경제·투자 정보를 탐색하는 루틴을 갖고 있었다. 금융자산 70억 원을 보유한 60대 남성은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2~3시간 동안 경제지·일간지를 보고 인터넷으로 1시간 정도 해외 경제를 찾아봐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안되겠단 생각에 20년 정도 해오고 있어요"라고 말했고,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40대 남성 역시 "매일 SBS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도 여러 신문사에서 모아둔 정보를 30분 정도 봐요...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라고 언급해, 시장 트렌드나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탐색하는 자기만의 루틴을 장기간 실천해 온 부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뉴스나 광고를 통해 호재가 있으면 관련된 기업을 찾아봐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 10년치는 무조건 봐요"라며 단순히 뉴스나 기사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파생되는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50대 남성, 금융자산 30억원).

'뉴스·기사' 외에도 '금융 앱'을 이용하거나 '전문지식'을 습득해 투자·자산관리 정보를 얻는 부자도 있었다. 금융자산 30억 원을 보유한 60대 여성은 "PB나 금융사 푸시 알림·정보는 확인하는 편이고... 증권사 앱에서 보여주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Top20도 관심있게 봐요"라며 '금융사 앱'의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했다.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40대 여성은 "평일에도 퇴근 후 1~2시간 경매 공부를 하고... 손해사정사도 딸까 생각 중"이라며 투자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노력을 공유했다.

그림 46 한국 부자의 투자·자산관리 정보 탐색 행태



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대상 개인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결과

한국 부자는 미래의 부자에게 자산관리와 함께 인품·건강·가족관계 관리가 중요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자에게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는 충분한 자산을 모으고 경제적 여유를 얻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품이나 건강, 가족 및 인간관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를 추구했다. 미래의 부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좀더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를 대상으로 개인심층인터뷰(IDI)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40대 남성은 "재산을 더 늘리면 좋지만 부족하지 않은 정도만 있으면 돼요. 금액 기준은 없고 저나 가족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정도이면 돼요. 돈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라고 했으며, 금융자산 30억 원을 보유한 50대 남성은 "건강에 신경쓰기 위해 PT도 받았어요. 최근에는 필라테스나 명상을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 찾으려고 해요. 결국 육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건강과 가족관계를 챙길 것을 강조했다. 금융자산 30억 원을 보유한 60대 여성은 "돈보다는 인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속이면 안 되고...선하게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 인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제 자식들에게도 당부했어요"라며 '인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자산 70억 원을 보유한 60대 남성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여러 정보를 듣게 돼요. 온라인으로 찾고 보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듣는 건 달라요"라며 혼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림 47 한국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대상 개인심층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결과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가 걸어 온 부의 여정을 부자를 꿈꾸는 미래 부자에게 제안하다

한국 부자 수는 2011년 13만 명에서 2025년 47만 6천 명으로 매년 9.7% 늘었다

- ✓ 2025년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 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 총인구 중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7%, 2020년 0.68%, 2025년 0.92%로 상승
-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15%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증가율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2024년에는 1.1%, 2025년에는 3.2% 증가에 그치며 정체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은 2025년 3,066조 원으로 2011년 이후 매년 7.2% 불었다

- ✓ 총금융자산은 2011년 1,158조 원에서 2025년 3,066조 원으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
- ✓ 총금융자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해는 2021년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한 2,618조 원을 기록한 반면, 2019년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8%, -4.7%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함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자산 비중은 증가해 왔다

- ✓ 부동산자산 비중은 2011년 58.1%와 2012년 59.5%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1~53%대로 낮아졌으며, 팬데믹 기간 가격 상승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 다시 하락해 2025년 54.8%로 감소
- ✓ 금융자산 비중은 40%대 초반을 차지한 2015년부터 201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30%대 후반을 유지
- ✓ 금융자산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는 기타자산에 대한 관심과 비중 증가로 이어짐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을 유지했다

- ✓ 조사 첫해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4년간 부자의 자산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총자산 10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꼽음
- ✓ 총자산 '100억원미만'의 부자도, '100억원이상'의 부자도 '총자산 100억 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선택

한국 부자의 부자 자각도는 2011년 24.5%에서 2015년 34.3%로 높아졌다

- ✓ 전반적으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자 자각도가 높다는 점이 15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옴- 2012년 부자 동의율: '총자산 50억원미만' 11.0%, '50억원~100억원미만' 26.7%, '100억원이상' 71.2%- 2025년 부자 동의율: '총자산 50억원미만' 22.3%, '50억원~100억원미만' 35.2%, '100억원이상' 59.7%

부자의 총자산 목표액은 2011년 평균 75억 원에서 2025년 152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 ✓ 돈을 모을 때 실행력을 제고하는 동인인 '목표액'은 지난 15년간 '152억 원'(2025년 평균)까지 점증
- ✓ 2016년 이후 2025년까지 현재 보유한 총자산 규모별로 한국 부자 간 목표액 격차가 점차 축소('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목표액은 2016년 평균 272억 원으로 '50억원미만' 부자의 4.8배,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2.8배에서 2025년(평균 304억 원) 각각 3.5배, 2.0배로 축소)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융투자 이익으로 부를 이룬 경우가 늘었다

- ✓ 조사 첫해인 2011년에는 1순위로 절반 정도인 45.8%가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꼽았고, '사업소득'(28.4%), '상속·증여'(13.7%),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8.2%), '근로소득'(3.9%)이 뒤를 이음
- ✓ 반면 2025년에는 '사업소득'이 34.5%로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22.0%),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16.8%), '근로소득'(10.3%), '상속·증여'(10.3%)의 순

부자의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 대세론에서 금융투자, 실물투자, 리밸런싱, 가상자산까지 다양화됐다

- ✓ 부동산투자에 집중되었던 부자의 관심사는 금융투자와 금·예술품 등 실물자산 같은 투자처를 넘어, 투자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자산관리 상담으로 폭넓게 확대
- ✓ '국내외 경제 동향 정보 수집'도 2011년 2.3%에서 2025년 10.3%까지 늘어나며 관심사 다양화를 대변

한국 부자는 수익을 예상하는 단기 투자처로 기타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15년간 꾸준히 높아져 왔다

- ✓ 기타자산 투자처로 각광받은 투자처는 '금·보석'과 '가상자산'(가상자산은 2021년 0.8% → 2025년 4.3%)
- ✓ 금융자산 중 단기 투자처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펀드'와 '채권'에 대한 기대감은 상실

현재의 부자는 미래의 부자에게 자산관리와 함께 인품·건강·가족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개별 심층 인터뷰에서 한 참석자는 "재산을 더 늘리면 좋지만 부족하지 않은 정도만 있으면 돼요... 돈 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고 싶진 않아요"라고 언급
- ✓ 또 다른 참석자는 "돈이 있어도 인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제 자식들에게도 당부했어요"라며 인품을 강조

지난 15년간의 한국 부자는 2011년 13만 명에서 2025년 47만 6천 명으로 매년 9.7% 증가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전년 대비 2024년에는 1.1%, 2025년에는 3.2% 증가하는 데 그쳐 향후 부자 수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 규모는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2011년 1,158조 원에서 2025년 3,066조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는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줄고 기타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변화도 확인됐다. 기타자산은 금·보석 같은 실물자산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 가치가 늘면서 한국 부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한 원천에도 변화가 관찰됐는데, 과거 '부동산투자'와 '상속·증여' 중심에서 '사업소득'으로 옮겨가고 '근로소득'과 '금융투자 이익'으로 부를 늘린 경우도 늘어났다.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사도 부동산투자 대세론에서 금융투자, 실물투자, 리밸런싱, 가상자산까지 다양해졌다. 현재의 부자가 미래의 부자에게 전하는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 1순위는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15.0%)으로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중요한 자산관리 팁으로 강조했고, 인품·건강·가족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함으로써 모든 역량을 두루 갖춘 '육각형 부자'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CHAPTER

I

한국 부자 현황

01 I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02 I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요약 Key Findings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캡제미니의 《2025 글로벌 웰스 리포트(World Wealth Report 2025)》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의 성장 회복과 글로벌 주식시장의 탄탄한 모멘텀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부자(거주 주택 등을 제외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능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가 지난해 대비 각각 2.6%, 4.2% 증가했다.

견고한 주식시장 수익률과 인공지능(AI) 및 기술주에 대한 높은 관심은 글로벌 공통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 부자 수와 지역별 분포,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규모 등 한국 부자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통계, KB금융 고객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추정했다. 부동산자산은 부동산 등기 정보를 취합하여 파악한 실제 자산 분포와 금융자산 분포를 결합하여 추정했고,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통해 보유한 부동산자산도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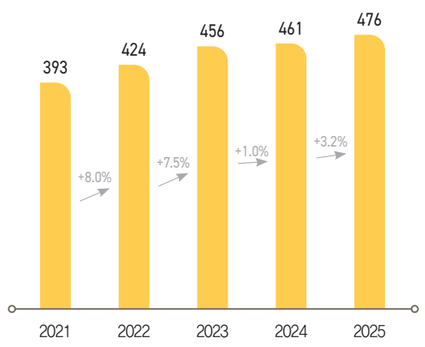
01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2025년 '한국 부자'는 4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2%,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8.5% 증가했다**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2025년 47만 6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46만 1천 명) 대비 1만 4천 9백 명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에서 부자의 비중은 0.93%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부자 수 증가율은 2024년 1.0%에서 2025년 3.2%로 소폭 확대됐으나, 여전히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7.3%에는 못 미치는 등 2년 연속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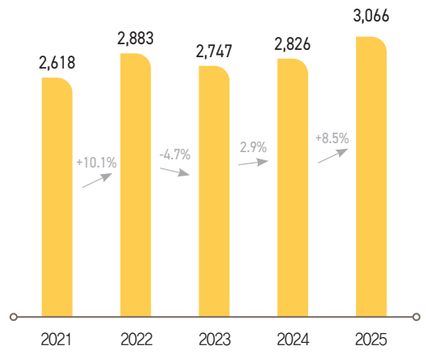
2025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주식 강세장이 견인한 금융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2,826조 원) 대비 8.5% 증가하며 2024년 2.9%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2배 수준으로 일반 가계 대비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더 빨랐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전체 가계의 총금융자산 규모인 5,041조 원의 60.8%를 차지하며 2024년(58.6%)보다 2.2%p 상승했다.

그림 I-1 한국 부자 수 추이 (단위: 천명)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그림 I-2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이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총금융자산에는 현금 및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거주자 · 비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부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 가치)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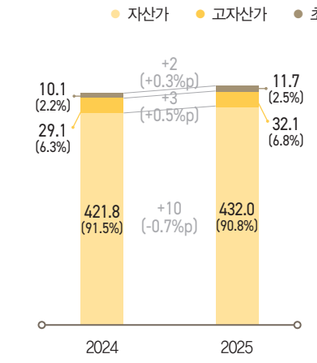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1만 1천 7백 명,
이들의 금융자산은 1,411조 원으로 부자 금융자산 중 46%였다**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한국 부자를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부의 추이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미만'인 부자를 '자산가', '100억원~300억원미만'인 부자를 '고자산가', '300억원이상'인 부자를 '초고자산가'로 정의했다.

2025년 한국 부자 중 '자산가'는 43만 2천 명(전체의 90.8%)으로 2024년(42만 2천 명) 대비 1만 명, '고자산가'는 2만 9천 명에서 3만 2천 명(6.8%)으로 3천 명, '초고자산가'는 1만 명에서 1만 2천 명(2.5%)으로 2천 명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실물자산 투자보다 금융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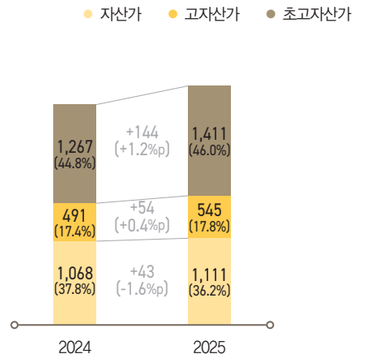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합계 3,066조 원)는 각각 1,111조 원, 545조 원, 1,411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각각 전체 가계의 총금융자산인 5,041조 원의 각각 22.0%, 10.8%, 2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한국 부자의 전체 금융자산 중 4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자산가' 17.8%, '자산가' 36.2%).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025년 64억 4천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1천만 원 증가했으며, '자산가'는 25억 7천만 원, '고자산가'는 169억 5천만 원, '초고자산가'는 1천 2백억 8천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3 부자 구분별 부자 수 (단위: 천명)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300억원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개인

그림 I-4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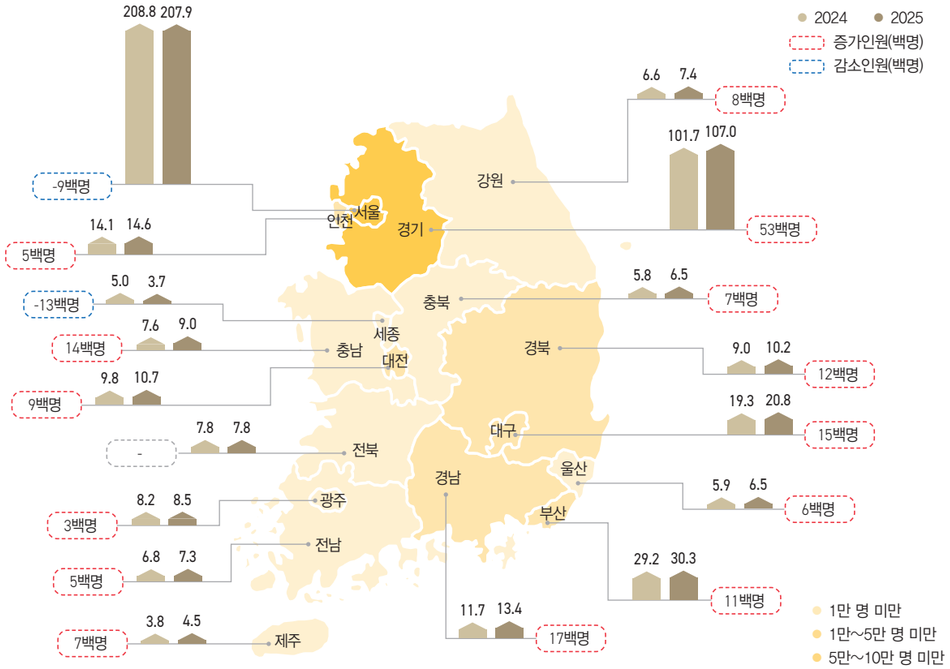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300억원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개인

한국 부자는 서울 포함 수도권에서 4천 9백 명이 늘었으나, 부자 비중은 2024년 70.4%에서 69.2%로 줄었다

2025년 기준 한국 부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20만 7천 9백 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기 10만 7천 명(22.5%), 부산 3만 3백 명(6.4%), 대구 2만 8백 명(4.4%), 인천 1만 4천6백 명(3.1%)의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통틀어 수도권에 32만 9천 5백 명(2024년 32만 4천 6백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년 간 전국에서 늘어난 1만 4천9백 명의 부자 중 4천 9백 명이 이 지역에서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자의 비중은 69.2%로 지난해(70.4%) 대비 소폭(1.2%p) 감소했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16.1%(+0.4%p), 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14.6%(+0.7%p)로 부자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서울 내에서는 2025년 기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부자의 46.8%가 거주하고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강북' 지역에는 부자의 33.6%가 거주하며 전년 대비 0.9%p 감소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 지역'에는 19.6%가 거주하며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부자 수가 9백 명 감소한 가운데 '강남 3구'에서는 오히려 부자가 2천 3백 명 늘었다.

그림 I-5 지역별 부자 수 현황과 증감 (단위: 천명)



주) 전년 말 기준으로 부자 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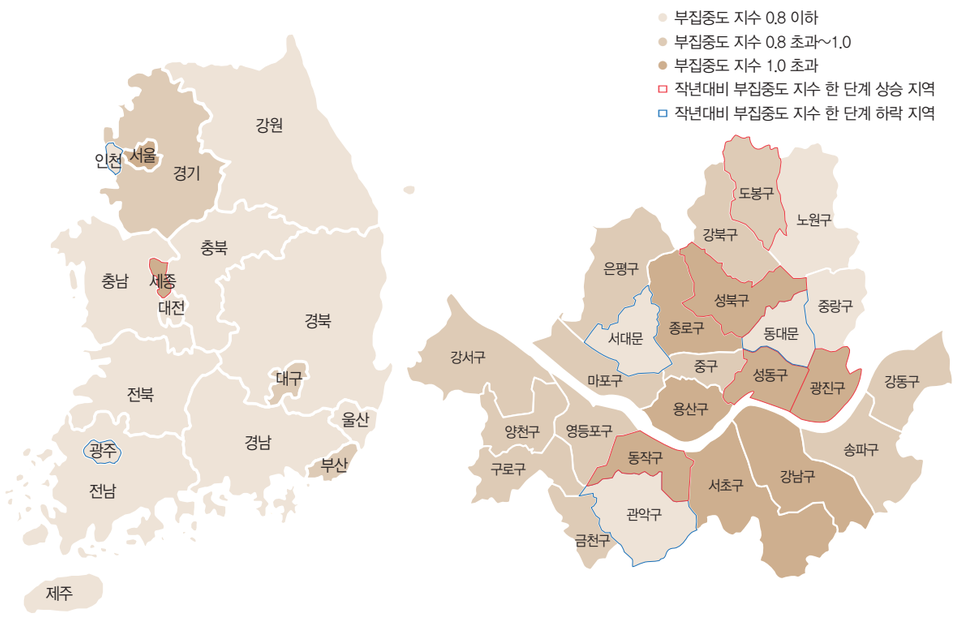
2025년 부집중도는 서울시와 세종시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 내에서는 한강에 인접한 자치구의 부집중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자산가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집중도 지수'를 산출했다. 부집중도 지수가 높을 수록 해당 지역에서 자산가 대비 고자산가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5년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한 지역은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시'(1.23)와 '세종시'(1.19)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부산시'(0.93), '경기도'(0.86), '대구시'(0.86)가 0.8 이상으로 높았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가 2024년에 이어 부집중도 지수 1.0 이상을 유지했으며, 새롭게 '성북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가 추가로 높은 부집중도를 보이는 자치구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부촌이던 종로구와 성북구를 제외한 여섯 개 자치구는 모두 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고자산가의 거주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6 전국 광역시·도 및 서울 자치구별 부집중도 지수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부집중도 지수: 지역구분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비중을 부자 수 비중으로 나눈 값. 부집중도 지수가 1 이상이면 부자 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아 부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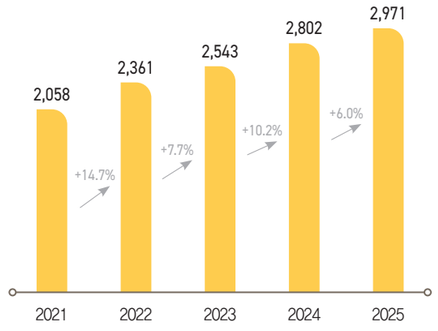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2025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자산은 2,9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5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자산은 총 2,971조 원으로, 2024년 2,802조 원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2023년(7.7%), 2024년(1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올해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부동산 신규 투자가 정체되고 금융 및 기타자산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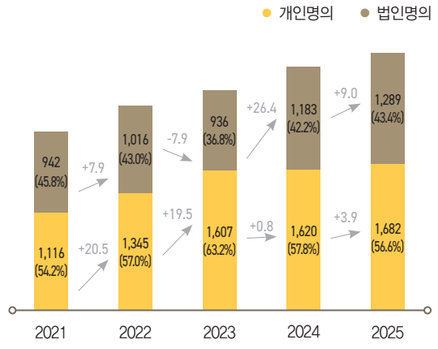
총부동산자산 2,971조 원 중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56.6%(1,682조 원), 개인이 소유한 법인이 보유한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43.4%(1,289조 원)를 차지했다.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2024년 0.8%에 증가에 이어 2025년에도 3.9% 증가에 그쳤다. '법인명의' 부동산자산 역시 2024년 26.4% 증가에서 2025년에는 9.0% 증가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모두에서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림 I-7 부동산자산 추이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총부동산자산에는 개인명의의 부동산자산과 법인명의의 부동산자산 포함

그림 I-8 부동산자산 세부 구성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개인명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 부동산자산의 합
법인명의는 개인이 소유한 법인 부동산자산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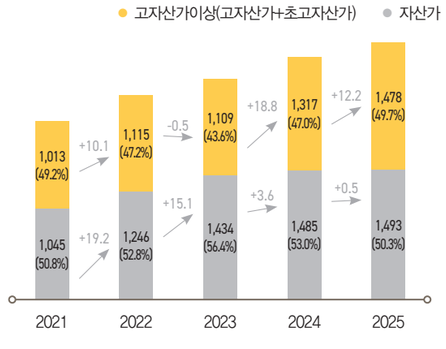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자산이 12.2% 증가하며 2025년에도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확대를 주도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증가는 법인명의 자산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부자유형별 부동산자산 증가율 격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5년 '자산가'의 부동산자산은 1,4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치며 2024년(3.6%)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를 합한 '고자산가이상'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1,47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여, 2024년(18.8%)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확대를 주도했다. 이는 '고자산가이상' 부자가 '자산가'에 비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우수한 우량 자산을 더 많이 보유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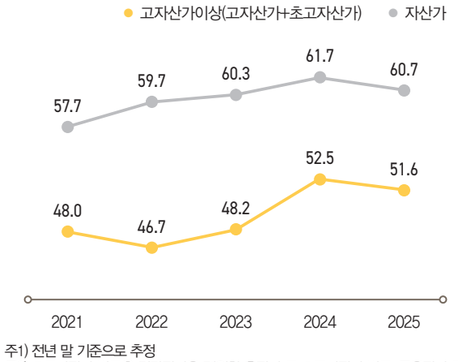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가'가 60.7%로 2024년 대비 1.0%p 하락했으며, '고자산가이상' 부자 역시 51.6%로 2024년 대비 0.9%p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 및 기타 자산 투자 증가로 부자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부자 그룹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9 부자유형별 부동산자산규모 추이 (단위: 조원)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그림 I-10 부자유형별 부동산자산 비중 추이 (단위: %)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추정
주2) 부동산자산 비중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 금융자산 중 거주자 · 비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부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 가치)은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에 중복 산정되어 금융자산에서 제외

2025년 한국의 부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속 금융자산 중심으로 부(富)가 증가했다

한국 부자 수는 4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 ✓ 2025년 한국 부자는 47만 6천 명으로 2024년 46만 1천 명 대비 1만 4천9백 명(+3.2%)이 증가
- ✓ 부자유형별로는 '자산가'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 비중이 증가: 부자의 90.8%(43만 2천 명)인 '자산가'(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미만)는 전년 대비 0.7%p 감소 6.8%(3만 2천 명)인 '고자산가'(금융자산 100억원~300억원미만)는 전년 대비 0.5%p 증가 2.5%(1만 2천 명)인 '초고자산가'(금융자산 300억원이상)는 전년 대비 0.3%p 증가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금융자산 선호 흐름 속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 ✓ 2025년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과거 평균 증가세 회복)
- ✓ 금융자산은 '자산가' 1,111조 원(36.2%), '고자산가' 545조 원(17.8%), '초고자산가' 1,411조(46.0%), 전년 대비 '초고자산가'의 금융자산이 144조 원 늘면서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증가에 기여('고자산가'의 금융자산은 54조 원, '자산가'는 43조 원 증가)
- ✓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4억 4천만 원으로 전년(61억 3천만 원) 대비 3억 1천만 원 증가. '자산가'는 25억 7천만 원, '고자산가'는 169억 5천만 원, '초고자산가'는 1천2백억 8천만 원을 보유

한국 부자의 6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서울 내 한강 인접 자치구의 부집중도가 두드러졌다

- ✓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69.2%인 32만 9천5백 명이 거주
- ✓ 2025년 금융자산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시'(1.23)와 '세종시'(1.19),서울 내에서는 종로구, 성북구를 제외하면 한강에 인접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의 부집중도가 1.0을 초과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971조 원,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 2025년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 증가는 '개인명의' 부동산자산보다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의 증가에 기인('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반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9.0% 증가)
- ✓ 부동산 신규 투자 위축, 금융 및 기타 자산 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모든 부자유형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자산가'의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60.7%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고,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자산 비중 역시 51.6%로 전년 대비 0.9%p 감소)

2025년 한국 부자는 47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93%에 해당하며, 2024년(46만 1천 명) 대비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주식 강세장이 견인한 금융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2,826조 원) 대비 8.5% 증가하며 2024년(2.9%)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은 2,9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과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 및 기타 자산 투자 비중이 확대되며 부자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부자 그룹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하락했다('자산가' 60.7%, 전년 대비 -1.0%p,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를 합한 '고자산가이상' 부자 51.6%, -0.9%p).

CHAPTER II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

01 I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02 I 부자의 투자 성향
03 I 부자의 투자 성과
04 I 부자의 주식 투자 현황

요약 Key Findings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캡제미니의 《2025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부자는 시장 모멘텀을 활용하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자본을 배분했다. 2025년 1월 기준, 이들은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주식 배분을 늘린(22%, 전년 대비 +1%p) 반면 금리 인하의 글로벌 영향으로 채권 비중은 축소했고(18%, -2%p), 사모펀드와 가상자산을 포함한 대체투자에는 지속적으로 15%를 배분하고 있었다.

이처럼 글로벌 부자의 신중한 자산 배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 장에서는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를 살펴보고, 투자 성향과 지식 수준 변화에 기반한 지난해 투자 성과를 파악했다. 이어서 올해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한 '주식' 투자와 관련해 포트폴리오 구성 등 구체적인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장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형 부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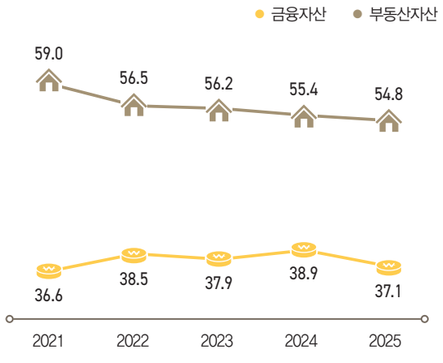
01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4.8%, 금융자산 37.1%로 구성됐고,
전년 대비 전통자산군의 비중 일부가 기타자산으로 분산됐다**

2025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이 54.8%, 금융자산이 37.1%를 차지하고, 그 외 회원권, 예술품, 가상자산 등 대체·실물자산으로 구성된 기타자산이 일부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용 주택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돼 부동산자산(77.3%) 비중이 금융자산(18.0%) 보다 월등히 높은 전체 가계와 비교할 때,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 가계의 2.1배 수준이었다.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각각 -0.6%p, -1.8%p)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속 매수·보유 확대 둔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내 안정형 금융상품 위주로의 상대적 비중 변화,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관심 확대 등으로 기존 전통자산군의 비중이 일부 기타자산으로 분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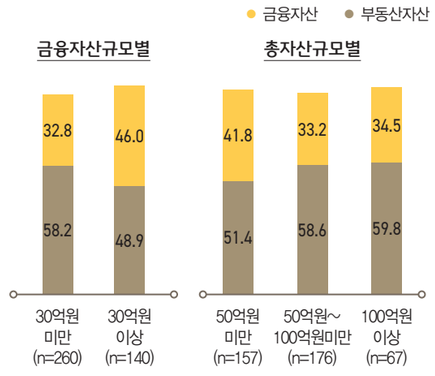
금융자산규모별로는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46.0%)의 금융자산 비중이 '30억원미만' 부자(32.8%) 대비 13.2%p 높았으며, 총자산규모별로는 부동산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41.8%로 가장 높았다('50억원~100억원미만' 33.2%, '100억원이상' 34.5%).

그림Ⅱ-1 자산구성비 추이 (단위: %)



주1) 중간값 기준.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주2) 각 연도 n=400

그림Ⅱ-2 자산규모별 자산구성비(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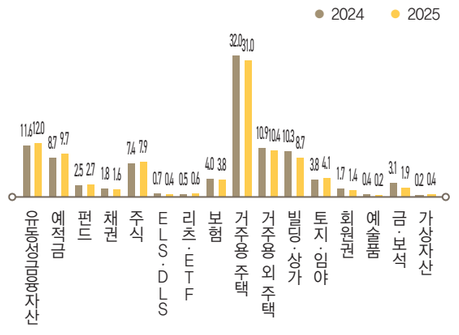
주) 중간값 기준.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총자산 중 '예적금'과 '주식'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부동산 세부 자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세부 자산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부자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거주용 주택'(31.0%)이었고, 현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의 '유동성금융자산'(12.0%), '거주용 외 주택'(10.4%), '예적금'(9.7%), '빌딩·상가'(8.7%), '주식'(7.9%) 등의 순이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전년 대비 '유동성금융자산'(+0.4%p)과 '예적금'(+1.0%p)의 비중이 증가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가 상승으로 '주식'(+0.5%p) 비중 역시 소폭 높아졌다. 부동산 신규 투자 위축 속 세부 부동산자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져 '거주용 주택'(-1.0%p)은 물론 '거주용 외 주택'(-0.5%p), '빌딩·상가'(-1.6%p) 등 거주용 외 부동산의 비중 역시 소폭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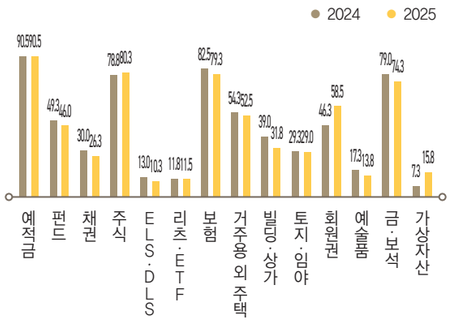
세부 자산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한국 부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모든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금융자산'과 '거주용 주택'을 제외하고, 부자 10명 중 8명 가량은 '예적금'(90.5%), '주식'(80.3%), '보험'(79.3%)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상품 중에는 '주식'(+1.5%p)만 전년 대비 보유율이 상승해 주식투자 확대 추세를 확인했고, 부동산투자 관망세속 '거주용 외 주택'(-1.8%p), '빌딩·상가'(-7.2%p), '토지·임야'(-0.3%p) 등 거주용 외 부동산의 보유율은 모두 하락했다. 기타자산 중에는 '회원권'(+12.2%p)과 '가상자산'(+8.5%p)의 보유율 상승이 두드러졌으나 총자산 내 포트폴리오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각각 1.4%, 0.4%) 향후 해당 자산군의 보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Ⅱ-3 세부자산유형별 총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 현금 + 수시입출식예금
주2) 보유율 10% 미만인 자산은 상기 제외
주3) 2024 n=400, 2025 n=400

그림Ⅱ-4 세부 자산유형별 보유율 (복수응답,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거주용 주택은 보유율 100%로 상기 제외
주2) 보유율 10% 미만인 일임형 · 신탁 등 제외
주2) 2024 n=400, 2025 n=40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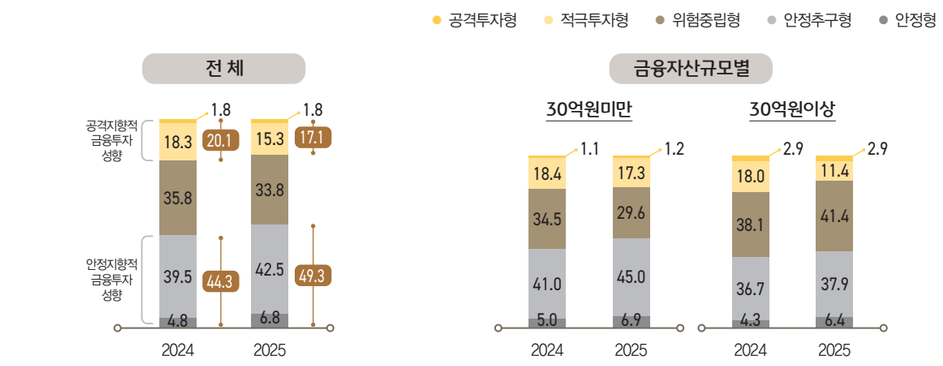
부자의 투자 성향

금융투자 시 지난해 대비 안정지향적 성향이 두드러졌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신중론이 확대됐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투자·소비 심리 위축 여파 속 시작된 2025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과 완만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한 해였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한국 부자의 올해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먼저 올해 한국 부자의 금융투자 성향은 지난해에 비해 '안정지향적 성향'이 늘고(+5.0%p) '공격지향적 성향'이 줄며(-3.0%p) 기대감 속 신중론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49.3%) 한국 부자는 '원금 손실이 없거나' 혹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수익 보장을 기대하는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인 '안정지향적 성향'을 보였고, 이는 손실 위험을 감내하거나 혹은 적극 수용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인 '공격지향적 성향'(17.1%)의 2.9배에 달하는 비중이었다. 금융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30억원미만과 30억원이상 부자는 '안정지향적 성향'이 전년 대비 각각 5.9%p, 3.3%p 높아졌다. 특히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공격지향적 성향'이 6.6%p 감소하여(30억원미만 -1.1%p) 올해 한층 신중한 투자 기조로 선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Ⅱ-5 금융투자 성향 추이 (2024년 vs. 2025년) (단위: %)



주1) 2024 n=400, 2025 n=400
주2) 금융자산 30억원미만 2024 n=261, 2025 n=260, 30억원이상 2024 n=139, 2025 n=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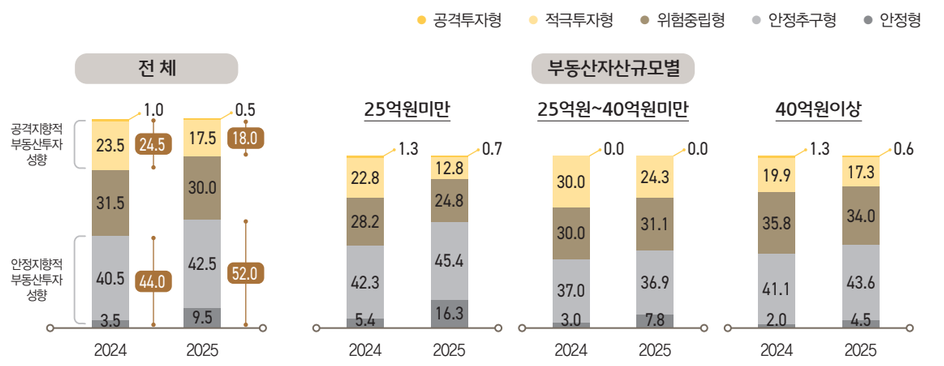
부동산투자 성향 역시 안정지향적 기조로 돌아섰고, 부동산자산이 적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졌다

한국 부자의 금융투자 성향에 이어 부동산투자 성향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올해 한국 부자의 부동산투자 성향 역시 앞서 살펴본 금융투자 성향과 마찬가지로 '안정지향적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과반이 넘는(52.0%) 한국 부자가 부동산투자 시 '안정지향적 성향'('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을 보인 반면, '공격지향적 성향'('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은 18.0%로 전년(24.5%) 대비 6.5%p 감소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주택유형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금리 변화 및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조사 시점 7월 기준)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한국 부자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와 '안정지향적 성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U'자형 관계를 보였다.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부자는 '안정지향적 성향'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억원~40억원미만' 부자는 44.7%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가 '40억원이상' 부자에서 48.1%로 다시 높아졌다. 이같은 '안정지향적 성향'은 부동산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전 그룹에서 지난해 대비 높아졌으며, 특히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부자(+14.0%p)에서 '25억원~40억원미만'(+4.7%p)과 '40억원이상'(+5.0%p) 부자 대비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공격지향적 성향' 역시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부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13.5%, -10.6%p),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자산이 적은 부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Ⅱ-6 부동산투자 성향 추이 (2024년 vs. 2025년) (단위: %)



주1) 2024 n=400, 2025 n=400
주2)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2024 n=149, 2025 n=103, 25억원~40억원미만 2024 n=100, 2025 n=151, 40억원이상 2024 n=151, 2025 n=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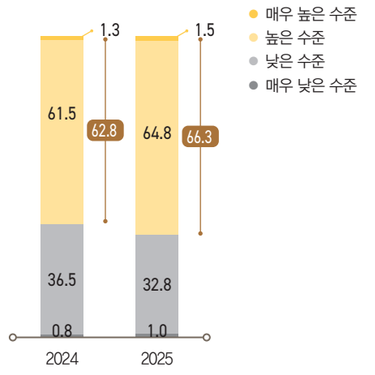
부자의 3분의 2는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졌다

앞서 한국 부자의 금융 및 부동산투자 성향이 지난해 대비 안정지향적으로 선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이같은 투자 성향 변화를 보인 부자가 스스로의 투자 지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자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자평했다. 가장 많은 64.8%의 부자는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이 '투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와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1.5%는 '전문적으로 분석해 스스로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합계 66.3%, 지난해 대비 +3.5%p). 이같은 부자의 자신감 상승은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 속 신중한 금융투자를 위해 관련 지식 습득 노력을 활발히 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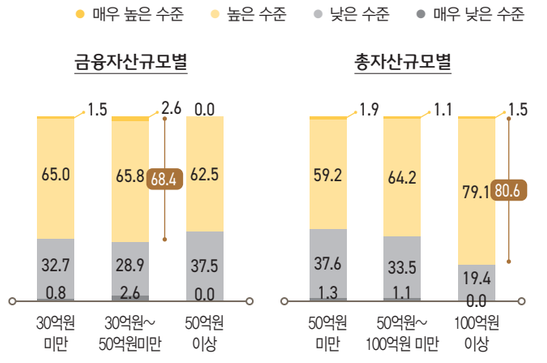
자산규모에 따른 금융투자 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규모에 따른 지식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금융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의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68.4%), 이어 '금융자산 30억원미만'(66.5%), '금융자산 50억원이상'(62.5%) 순이었다. 이에 반해 총자산규모별로는 금융투자 지식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총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가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자 10명 중 8명(80.6%)은 자신이 '높은 수준 이상'의 금융투자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해(70.0%)보다 10.6%p가 상승한 결과다.

그림Ⅱ-7 금융투자 지식 수준 추이 (2024년 vs. 2025년) (단위: %)



주) 2024 n=400, 2025 n=400

그림Ⅱ-8 자산규모별 금융투자 지식 수준 (단위: %)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0, 30억원~50억원미만 n=76, 50억원이상 n=64
총자산 50억원미만 n=157, 50억원~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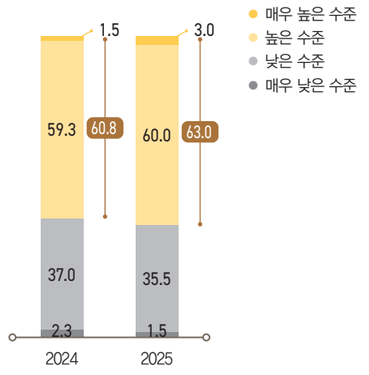
부자의 63.0%는 스스로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고, 부동산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자산 규모와 비례했다

이번에는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투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 이상'의 투자 지식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한국 부자는 63.0%에 달했고('매우 높은 수준' 3.0%, '높은 수준' 60.0%), 이는 앞서 살펴본 부자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높은 수준 이상' 66.3%)과 유사한 결과였다. 지난해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부동산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 역시 금융투자 지식과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한(+2.2%p)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 신규 투자 위축 속에서도 이처럼 부자의 부동산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한 배경에는, 시장 추이를 관망하며 투자 대상과 전략, 타이밍 등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온 부자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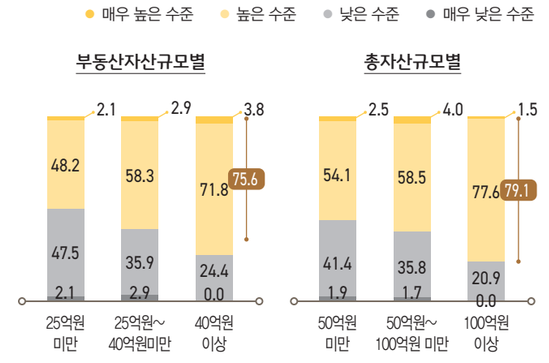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은 부동산자산 및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투자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부동산자산 40억원이상' 부자 75.6%는 자신이 '높은 수준 이상'의 부동산투자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부자(50.3%) 보다 무려 25.3%p나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였다. 총자산규모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 10명 중 8명(79.1%)이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에 대해 스스로 자신있다고 답했고, 이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 응답률 보다 22.5%p가 높은 수치였다.

그림Ⅱ-9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 추이 (2024년 vs. 2025년) (단위: %)



주) 2024 n=400, 2025 n=400

그림Ⅱ-10 자산규모별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 (단위: %)



주)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n=141, 25억원~40억원미만 n=103 40억원이상 n=156
총자산 50억원미만 n=157, 50억원~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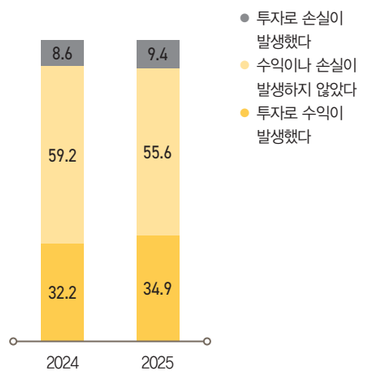
03 부자의 투자 성과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투자 성과가 양호했다

앞서 제1장 '한국 부자 현황'에서 2025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속 금융자산 선호 현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금융투자 성과를 질문한 결과, 부자의 34.9%는 '수익'을 경험했다고 답해 '손실'을 경험했다는 응답률(9.4%)보다 3.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익' 경험은 지난해(32.2%)와 비교해도 2.7%p 더 높은 응답률로, 주식시장의 강력한 반등과 채권 시장의 양호한 성과가 확인된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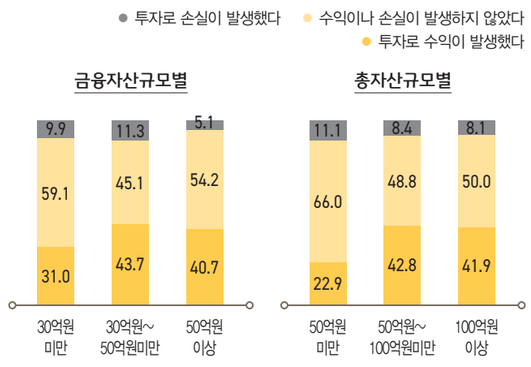
자산규모별로는 금융자산 30억원이상과 30억원미만의 부자 간, 총자산 50억원이상과 50억원미만의 부자 간 투자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금융자산 50억원이상'의 부자는 수익 경험이 40.7%로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부자(43.7%)와 유사했으나 손실경험은 5.1%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 성과를 보였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50억원이상 부자 대비 수익경험이 낮고(22.9% vs. '50억원~100억원미만' 42.8%, '100억원이상' 41.9%) 손실경험이 더 높았다(11.1% vs. 8.4%, 8.1%).

그림Ⅱ-11 직전 1년간 금융상품 투자 성과 (단위: %)



주) 2024 n=400, 2025 n=400

그림Ⅱ-12 자산규모별 금융상품 투자 성과 (단위: %)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0, 30억원~50억원미만 n=76, 50억원이상 n=64
총자산 50억원미만 n=157, 50억원~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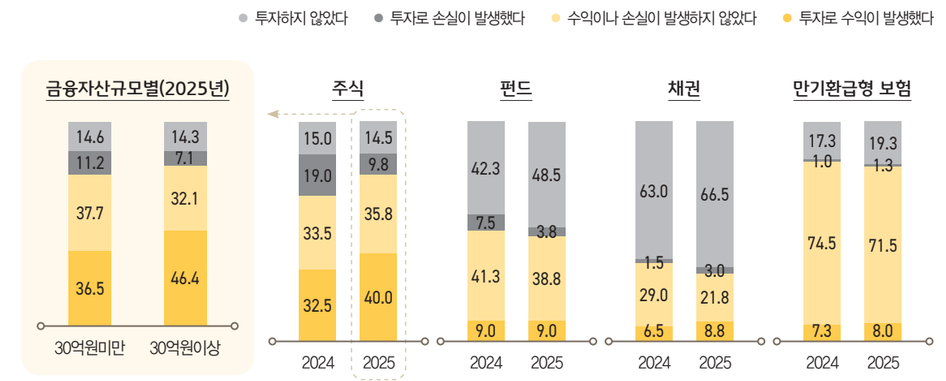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는 한국 부자가 지난 1년 간 세부 금융상품별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부자가 수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금융상품으로는 '주식'(40.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펀드'(9.0%), '채권'(8.8%), '만기환급형 보험'(8.0%)이 뒤를 이어,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2025년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확대와 양호한 금융투자 성과를 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 투자를 경험한 부자의 경우 지난 1년 간 '수익이 발생했다'(40.0%)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35.8%), '손실이 발생했다'(9.8%) 순의 투자 성과를 보였다. 이같은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경험은 손실경험보다 무려 30.2%p 높은 응답률로, 지난해(수익 경험과 손실경험 차이 13.5%p) 대비 수익경험이 늘고(+7.5%p) 손실경험이 줄며(-9.2%p) 그 격차를 더 벌렸다. 금융자산규모별 '주식' 투자 성과 역시 차이를 보여,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부자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투자 성과를 거뒀다('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주식' 투자 수익경험률 46.4% vs. '30억원미만' 36.5%).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9.0%였으나 손실경험이 2배 줄어 3.8%에 그쳤다. 이는 국내 및 해외 증시 호조에 힘입어 주식형 펀드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인 것과 유관한 결과로 해석된다. '채권' 투자 역시 금리 하락과 우호적인 발행 여건 조성으로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8.8%로 지난해 대비 소폭 늘었다(+2.3%p).

그림Ⅱ-13 금융상품유형별 투자 성과 (2024년 vs. 2025년) (단위: %)



주) 각 금융상품유형별 n=40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0, 30억원이상 n=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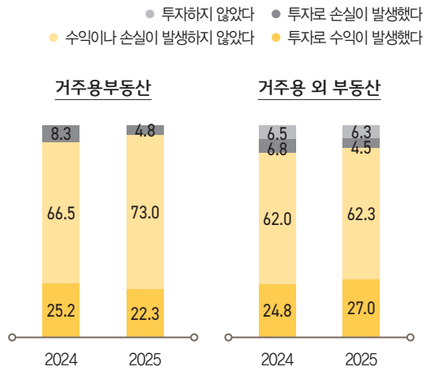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용'과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에서 신중한 투자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과반이 넘는(52.0%) 한국 부자가 올해 부동산투자 시 '안정지향적 성향'을 보였고, 그 결과 2025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자산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폭(+6.0%)이 2024년(+10.2%)에 비해 둔화되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부동산투자 기조가 확인됐다.

지난 1년 간 부동산투자 성과에 대한 질문에도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에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거주용 부동산' 73.0%, '거주용 외 부동산' 62.3%) 신중한 투자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결과,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22.3%로 '손실'을 경험한 부자(4.8%) 대비 4.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익경험과 손실경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9%p, 3.5%p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응답률이 27.0%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응답률(4.5%)보다 6배 높았고, 지난해 24.8%에 비해 소폭(2.2%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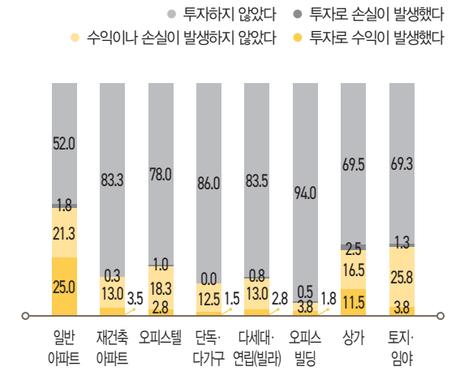
거주용 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과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자산 유형에서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손실을 경험한 사례보다 많았다. 그중 수익경험이 두드러진 상위 2개의 자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 아파트'(25.0%)와 '상가'(11.5%)였고, '일반 아파트'의 수익경험은 손실경험 대비 무려 13.9배, '상가'의 경우 4.6배 높았다. 이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자산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하락하고 관망세가 이어지며 '투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수익'을 경험한 부자 역시 5% 이내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Ⅱ-14 직전 1년간 부동산자산 투자 성과 (단위: %)



주) 2024 n=400, 2025 n=400

그림Ⅱ-15 거주용 외 부동산자산유형별 투자 성과 (단위: %)



주) 2025년 기준, 각 부동산자산유형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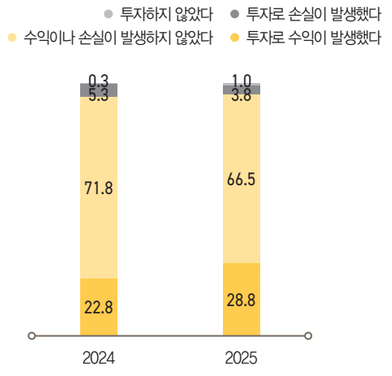
'금·보석' 등 기타자산 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늘었고, '회원권'·'가상자산' 투자를 소폭 늘렸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기타자산은 전체 자산의 5.8%에 불과하나, 앞서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해 대비 '회원권'(58.4%, +12.2%p)과 '가상자산'(15.7%, +8.5%p)을 보유한 부자의 비중이 늘며 기타자산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부자의 3분의 2(66.5%)는 지난 1년 간 기타자산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해 대비 5.3%p 하락한 수치였다. 반면 기타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28.8%로 2024년 22.8%보다 6.0%p 높아진 모습을 보였고 손실경험 및 미투자 응답률은 큰 변화가 없어, '수익이 발생했다'는 응답률이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률 하락을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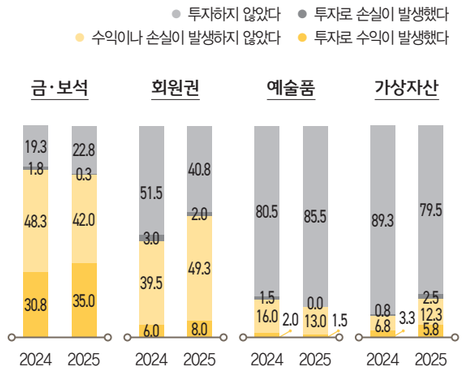
세부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부자의 4분의 3(74.3%)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석'의 경우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지난해보다 4.2%p 높은 35.0%에 달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며 금·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 한국 부자의 수익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원권'의 경우 '투자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대비 10.7%p 감소한 40.8%였고, 수익경험은 손실경험(2.0%) 대비 4배 높았으나 여전히 8.0%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상자산' 역시 '투자하지 않았다'는 응답률(79.5%)이 2024년 대비 9.8% 감소하며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였고, '수익'을 경험한 사례(5.8%)는 손실을 경험한 사례(2.5%) 대비 2.3배 많았다.

그림Ⅱ-16 직전 1년간 기타자산 투자 성과 (단위: %)



주) 2024 n=400, 2025 n=400

그림Ⅱ-17 기타자산 세부유형별 투자 성과 (단위: %)



주) 2024년, 2025년 기준 각 항목별 n= 4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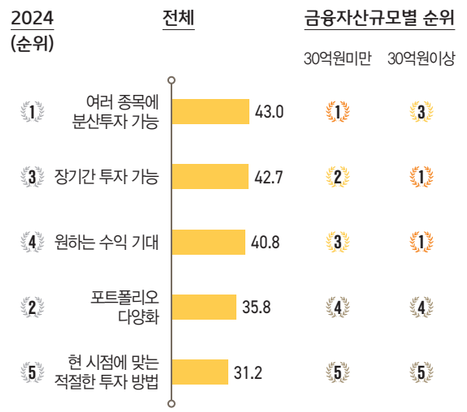
부자의 주식 투자 현황

주식 투자 이유 상위 두 가지는 '분산투자'와 '장기 투자'로, 과거보다 긴 호흡으로 국내외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다

앞서 '주식'은 2025년 한국 부자가 보유율과 총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높인 자산인 동시에 수익경험 확대를 주도한 투자상품임을 확인했다. 지난 6월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천 선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온 상황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부자를 대상으로 투자 이유를 질문했다(조사 시점 7월 기준). 그 결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서'(43.0%) 의견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지난해 3위였던 '장기간 투자가 가능해서'(42.7%) 의견이 2위로, 4위였던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40.8%) 의견이 3위로 올라섰다. '장기간 투자가 가능해서'는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1위로 꼽은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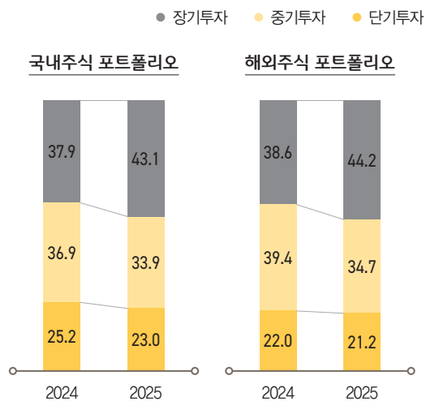
실제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투자기간별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를 확인한 결과, 국내외주식에서 모두 장기 투자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및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장기투자(연단위)' 운용이 각각 43.1%,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기투자(월단위)'(33.9%, 34.7%), '단기투자(일단위)'(23.0%, 21.2%) 운용 순이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장기투자' 비중은 늘고 '단기투자' 비중은 줄었다.

그림Ⅱ-18 주식 투자 이유 Top5 (복수응답, 단위: %)



주) 주식 거래자 전체 n=321, 금융자산 30억미만 n=208, 30억이상 n=113

그림Ⅱ-19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 (단위: %)



주) 국내주식 거래자 전체 2024 n=279, 2025 n=304,
해외주식 거래자 전체 2024 n=190, 2025 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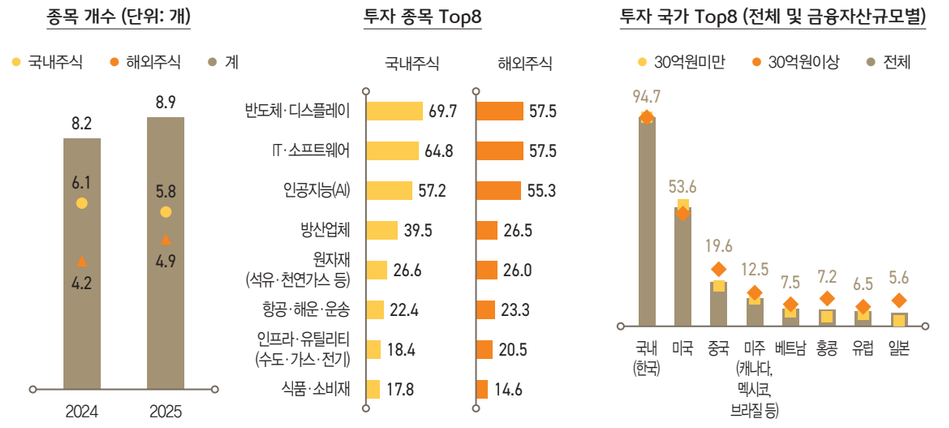
서학개미 열풍에 해외주식 보유가 늘었고, 국내외 공통으로 반도체·IT·AI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다

2025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한국 부자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식 투자 확대 흐름에 힘입어 올해 한국 부자의 투자 주식 종목 개수는 평균 8.9개로 지난해 대비 0.7개 증가했다. 이중 국내종목은 평균 5.8개, 해외종목은 평균 4.9개로 국내주식 수가 소폭 더 많았다. 다만, '서학개미' 열풍에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가며 해외주식 보유 개수가 증가했다(+0.7개).

보유 종목으로는 국내, 해외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AI' 순으로 높았고,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세 분야 관련주로 투자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종목에서 국내 보유율이 더 높았으나, '항공·해운·운송', '인프라·유틸리티' 종목에서는 해외 투자율이 소폭 더 높았다.

대다수가 거래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투자 국가는 '미국'으로, 부자의 과반 이상(53.6%)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뒤 이어 '중국'(19.6%), '미주(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12.5%), '베트남'(7.5%), '홍콩'(7.2%), '유럽'(6.5%), '일본'(5.6%)의 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유 비중은 20% 이내로 높지 않았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 주식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보유율이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보다 소폭 더 높아,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림Ⅱ-20 보유 주식 현황 (단위: 개, %)



주) 국내주식 거래자 전체 2024 n=279, 2025 n=304, 해외주식 거래자 전체 2024 n=190, 2025 n=219

지난 1년 간 유지된 국내외 증시 강세장 속
'주식' 투자 확대와 수익 경험이 금융투자 성과 개선을 주도했다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4.8%, 금융자산 37.1%로 구성됐다

- ✓ 부동산 매수·보유 확대 둔화, 금융자산 내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관심 확대 등으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각각 -0.6%p, -1.8%p) 감소
- ✓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 내 부동산자산 비중(77.3%, 금융자산 18.0%)이 큰 전체 가계 대비 2.1배 높은 수준
- ✓ 2025년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 '예적금'(+1.0%p)과 '주식'(+0.5%p)의 비중을 늘렸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속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축소('거주용 주택' -1.0%p, '거주용 외 주택' -0.5%p, '빌딩·상가' -1.6%p)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융투자 시 안정지향적 성향이 강해졌다

- ✓ 한국 부자의 금융투자 성향은 지난해에 비해 '안정지향적 성향'이 늘고(49.3%, +5.0%p) '공격지향적 성향'이 줄며(17.1%, -3.0%p)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 신중론이 우세
- ✓ 부자의 66.3%는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상승

증시 강세장 속 '주식' 투자 수익 경험 증가가 양호한 금융투자 성과를 견인했다

- ✓ 주식시장의 강력한 반등이 견인한 금융시장의 양호한 성과로 부자의 34.9%는 지난 1년 간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했고(+2.7%p), 이중 '주식' 투자 수익경험률이 가장 높음(40.0%, +7.5%p)
- ✓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에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기며('거주용 부동산' 73%, '거주용 외 부동산' 62.3%) 신중한 투자 기조 지속
- ✓ 금·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시현 속 '금·보석' 등 기타자산 투자 수익 경험이 증가(28.8%, +6.0%p)

부자의 '주식' 투자 목적 Top2는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로, 상승장 속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였다

- ✓ 한국 부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분산투자'와 '장기투자'('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서' 43.0%, '장기간 투자가 가능해서' 42.7%)
- ✓ 한국 부자가 보유한 '주식' 종목 개수는 평균 8.9개(국내주식 5.8개, 해외주식 4.9개)로 지난해(8.2개) 대비 증가했고, 서학개미 열풍에 따른 해외주식 보유 증가(+0.7개)가 주식 투자 확대를 견인

2025년 한국 부자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4.8%, 금융자산 37.1%로 구성됐고, 총자산 포트폴리오 내 '예적금'(+1.0%p)과 '주식'(+0.5%p)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부동산 신규 투자 위축으로 부동산 세부 자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거주용 주택' -1.0%p, '거주용 외 주택' -0.5%p, '빌딩·상가' -1.6%p).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시 '안정지향적 성향'(49.3%, +5.0%p)이 강해졌고, 신중한 투자 기조 속에서도 지난 1년 간 상승세가 이어온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었다(보유주식 종목 개수 평균 8.9개, +0.7개). 증시의 우상향 흐름은 한국 부자의 양호한 금융투자 성과를 견인해, 부자의 34.9%는 지난 1년 간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했고(+2.8%p), 이중 '주식' 투자 수익경험률이 가장 두드러졌다(40.0%, +7.5%p).

CHAPTER III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

01 I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02 I 부자의 미래 투자 방향
03 I 부자의 미래 투자 계획
요약 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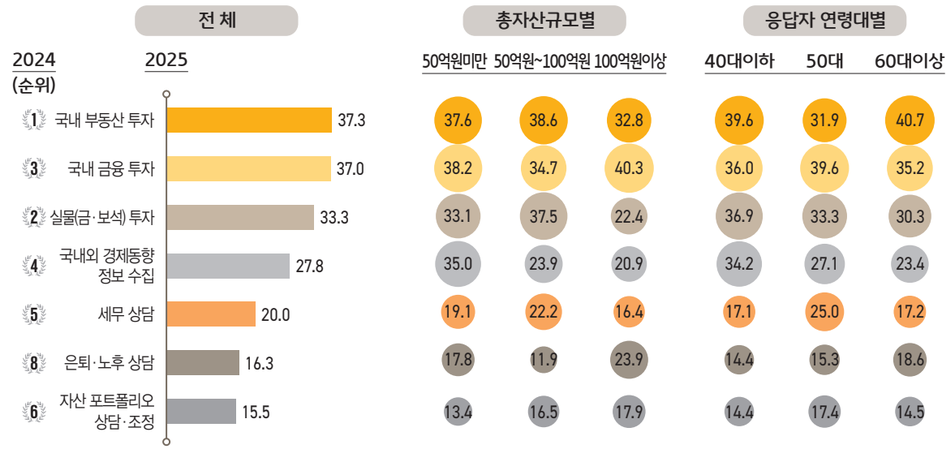
앞서 제1장과 제2장을 통해 '과거' 1년 간 47만 6천 명에 달하는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투자 행태·성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산군별 투자 성과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해 보았다. 먼저 한국 부자가 자산을 관리하며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와 어렵게 느끼는 분야를 각각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향후 1년(단기) 및 3~5년(중장기) 이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미래 투자 방향에 따른 2026년 금융자산 투자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장 역시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으로 10억원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01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한국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상위 두 가지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 '국내 금융 투자'였다

한국 부자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최근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을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37.3%)였으나 2위인 '국내 금융 투자'(37.0%)와 격차가 좁혀졌다. 뒤 이어 '실물(금·보석) 투자'(33.3%),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27.8%), '세무 상담'(20.0%), '은퇴·노후 상담'(16.3%),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15.5%)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식 상승 랠리가 견인한 금융투자 확대 움직임 속 지난해 3위였던 '국내 금융 투자'가 2위로 올라섰고, 올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은퇴·노후 상담'에 대한 관심 역시 소폭 높아졌다(2024년 8위→2025년 6위).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고자산가의 관심사 1위는 '국내 금융 투자'였고, '은퇴·노후 상담' 역시 높은 관심을 받으며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금융, 실물 투자 외 관심사 4위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총자산 50억원미만'의 '40대이하' 부자가, 5위 '세무 상담'에 대해서는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5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림 III-1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Top7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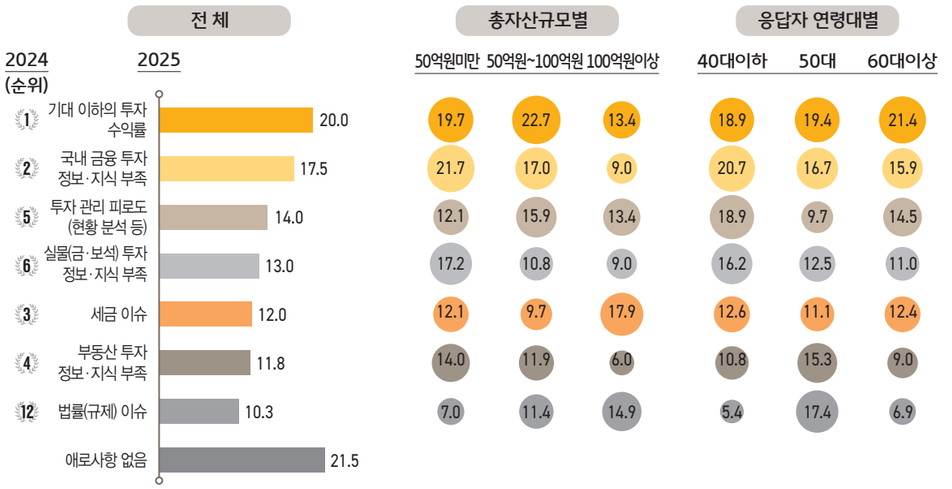
주1)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57, 50억원~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응답자 연령대 40대이하 n=111, 50대 n=144, 60대이상 n=145
주2) Top7 외 소비 · 지출 관리, 법률 상담, 가상자산 투자, 상속 · 증여 상담, 해외금융 투자, 재테크 교육 등 소수의견이 있음

자산관리를 하며 겪은 애로사항으로 '저조한 투자 수익률'과 '국내 금융 투자 정보·지식 부족'을 꼽았다

이번에는 한국 부자가 보유 자산을 관리하며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조사 대상자 중 5분의 1(21.5%)은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답한 가운데,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부자가 꼽은 애로사항 1위와 2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투자 수익률'(20.0%)과 '국내 금융 투자 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17.5%)이었다. 지난해 다섯번째 어려움으로 꼽힌 '투자 현황 파악 및 관리 피로도'(14.0%)는 올해 3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경기 변동성, 금리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정보 과부하, 의사결정 어려움 가중 등의 이유로 자산관리 피로도가 상승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6위였던 '실물(금·보석) 투자 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13.0%)은 4위로 두 계단 상승하며 전세계적인 금·은 상승 랠리 속 실물 투자에 대한 부자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자신관리를 하며 겪은 애로사항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국내 금융 투자 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을,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반면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가 꼽은 애로사항 1위는 '세금 이슈'가, 2위는 '법률(규제) 이슈'가 차지해, 고자산가의 자산 보호 및 상속 설계와 관련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이하' 부자는 40대이상의 부자와는 달리 '국내 금융 투자 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을 애로사항 1위로 꼽았고, '50대'에서는 '법률(규제) 이슈'가 2위를 차지해 은퇴 준비를 위한 자산 보호·이전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III-2 최근 자산관리 애로사항 Top7 (1+2+3순위, 단위: %)



주1)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57, 50억원~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응답자 연령대 40대이하 n=111, 50대 n=144, 60대이상 n=145
주2) Top7 외 불규칙적인 근로 · 사업소득, 투자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원금 손실, 자산관리 · PB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 소수 의견이 있음

02

부자의 미래 투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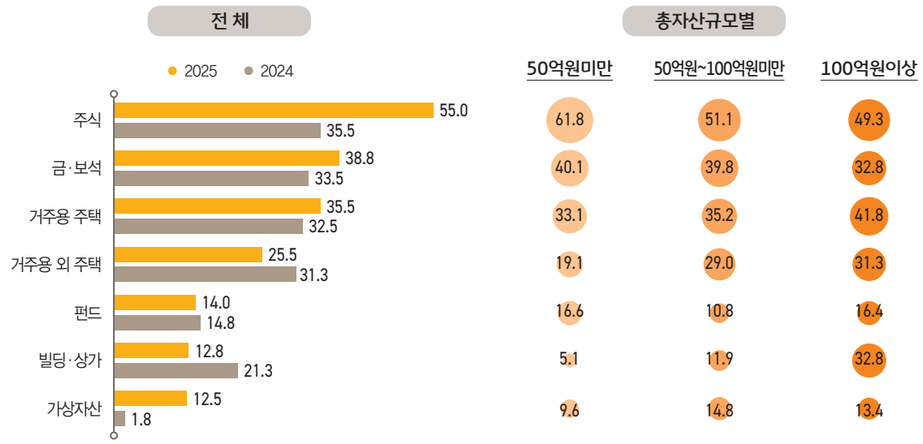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을 예상하는 유망 투자처 1위로 한국 부자의 과반 이상은 '주식'을 꼽았다

앞서 살펴본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와 애로사항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고수익 유망 투자처와 주요 전통 및 대체자산별 투자 의향 등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미래 투자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2026년 가장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으나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한 반면 거주용 외 부동산('거주용 외 주택', '빌딩·상가')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했다. 단기 고수익 투자처 1위 '주식'의 경우 과반이 넘는(55.0%) 부자가 AI 주도의 기술 성장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예상했고,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빌딩·상가'(12.8%), '가상자산'(12.5%)이 뒤를 이었다.

고수익을 예상하는 유망 투자처는 총자산 규모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주식'에 대한 단기적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61.8%),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59.8%)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는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전망 속에도 거주용 및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

그림 III-3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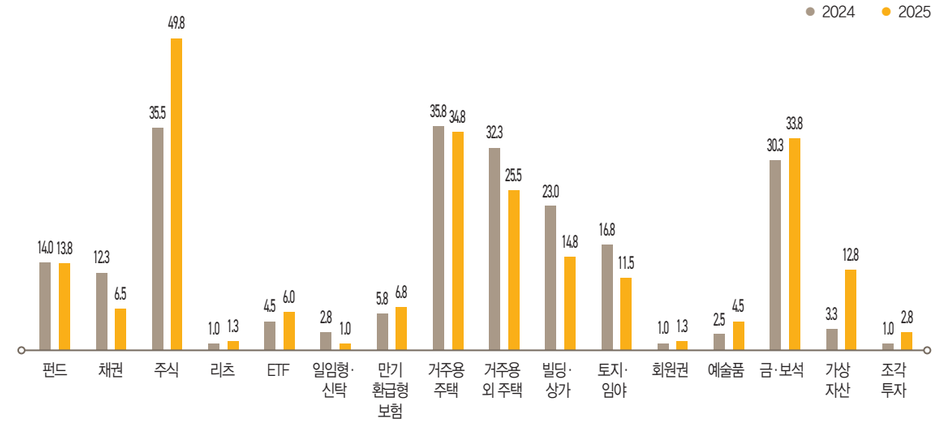
주) 전체 2024 n=400, 2025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57, 50억원~100억원미만 n=176, 100억원이상 n=67

향후 3~5년 간 고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 1위 역시 '주식'으로, 주식시장의 중장기적 우상향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번에는 한국 부자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짚어보았다. 한국 부자가 향후 3~5년 이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처 1위는 단기 예상과 동일하게 '주식'(49.8%)이었다. 이는 2024년 보다 무려 14.3%p 높은 응답률로, AI 기술 혁신, 글로벌 유동성 개선, 정부 정책 기대감 등과 같은 주식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중장기 고수익 유망 투자처 2위는 지난해 1위였던 '거주용 주택'(34.8%, -1.0%p)이었고, 지난해 4위였던 '금·보석'(33.8%, +3.5%p)은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 3위로 올라섰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자산 중 특히 거주용 외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며 투자처로서 기대감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3위였던 '거주용 외 주택'(25.5%, -6.8%p)은 4위로 밀려났고, '빌딩·상가'(14.8%, -8.2%p)와 '토지·임야'(11.5%, -5.3%p) 역시 하락폭이 컸다. '금·보석' 외에도 기타자산에 대한 중장기적 기대감이 높아져, '가상자산'(12.8%)이 단기 전망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 무려 9.5%p 급증했고 '예술품' 역시 소폭 상승했다(4.5%, +2.0%p). 특히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존재하나 우호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분야가 대체자산으로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점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4 향후 3~5년 중장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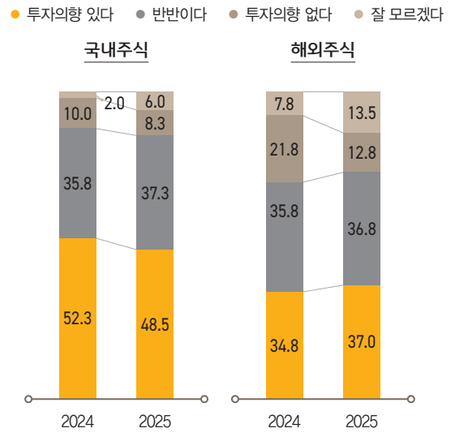
주1) 2024 n=400, 2025 n=400
주2) 현금이나 수시입출식예금, 예적금은 수익을 예상한 투자처로 보기 어려워 그래프에서 제외
주3) 거주용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등을, 거주용 외 주택은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등을 의미

국내외 주식 강세장에 대한 기대 속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 상승과 성과 기대가 두드러졌다

앞서 한국 부자는 2026년부터 향후 3~5년간 고수익을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전통자산을 대표하는 '주식'에 대해 향후 어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투자하고 있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내주식'(48.5%)에 대한 투자 의향이 '해외주식'(37.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3.8%p)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부자가 '국내주식'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5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말해주듯이, '해외주식'에 '투자 의향 있다'와 '반반이다'는 의견은 각각 37.0%, 36.8%로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2.2%, +1.0%) 반면 '투자 의향 없다'는 의견은 12.8%로 지난해보다 9.0%p 감소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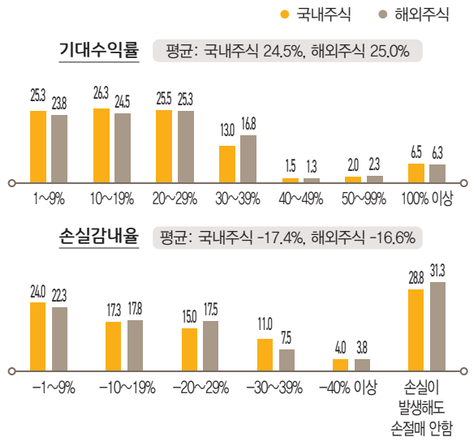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투자 기대수익률과 손실감내율에 대한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부자가 주식투자 시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은 20% 중반 수준으로, '해외 주식'(25.0%)에서 '국내 주식'(24.5%)보다 소폭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다. 지난해 기대수익률('국내주식' 16.9%, '해외주식' 16.0%)과 비교해보면, 올해 국내외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손실감내율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하며('국내주식' -17.4% vs. 2024년 -30.8%, '해외주식' -16.6% vs. 2024년 -33.8%)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고, '손실이 발생해도 손절매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해외주식'이 '국내주식'보다 높았다.

그림 III-5 향후 주식 투자 의향 (단위: %)



주) 각 항목별 n=400

그림 III-6 주식 투자 연간 기대수익률·손실감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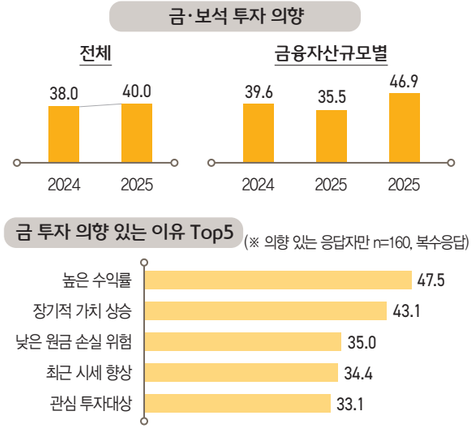
주) 각 항목별 n=400

'금·보석'에 대한 투자 의향은 꾸준히 높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과 우려, 기대가 교차했다

이번에는 한국 부자의 4분의 3(74.3%)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체자산인 '금·보석'과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을 파악해 보았다. 단기(2위)와 중장기(3위)에 걸쳐 고수익 유망 투자처로 기대되는 '금·보석'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40.0%가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2.0%p). 특히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가 과반에 가까운(46.9%) 투자 의향을 보이며 적정 규모의 금융자산 축적 후 대체자산으로 투자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보였다. 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높은 수익률이 기대돼서'(47.5%)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금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서'(43.1%), '원금 손실 위험이 적어서'(35.0%), '최근 금 시세가 올라서'(34.4%)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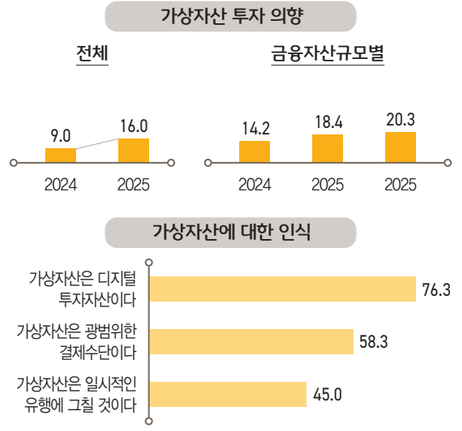
총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중(0.4%)은 미미하나 최근 보유율(15.8%)이 확대되고 향후 유망한 투자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16.0%가 투자 의향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7.0%p 높아진 수치였다. 이같은 투자 의향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높아져 '금·보석' 투자와 마찬가지로 적정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후 '가상자산'을 분산투자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디지털 투자자산'이라는 의견에 조사대상자의 4분의 3(76.3%)이, '광범위한 결제 수단'이라는 의견에는 이보다 적은 58.3%가 동의했다. 다만,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과반에 가까운 45.0%가 동의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관심과 우려, 기대가 교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7 향후 금·보석 투자 의향 (단위: %)



주) 전체 n=40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0, 30억원~50억원미만 n=76, 50억원이상 n=64

그림 III-8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 (단위: %)



주) 전체 n=40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0, 30억원~50억원미만 n=76, 50억원이상 n=64

03 부자의 미래 투자 계획

금융 시장 관망세 속 '현상 유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금까지 짚어본 미래 투자 방향을 바탕으로 한국 부자의 2026년 자산군별 투자 계획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한국 부자는 대체적으로 모든 자산군에 대해 내년에도 현재의 '투자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하며 '현상 유지' 기조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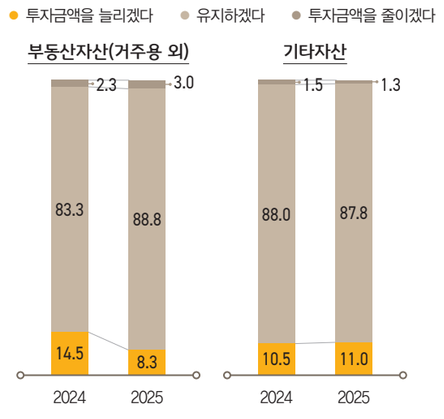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자산(거주용 외)에 대해서는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88.8%(전년 대비 +5.5%p)에 달한 가운데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라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6.2%p 감소한 8.3%에 그쳐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확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거주용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96.3%의 부자가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답한 가운데(+3.5%p)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라는 의견은 2.8%에 그쳤다(-2.7%p).

내년도 기타자산투자에 대해서도 87.8%의 부자가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부자는 11.0%로 지난해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0.5%p).

한편 금융자산투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투자 계획에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단기 고수익 유망 투자처 1위로 꼽힌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17.0%로 가장 높았고 '투자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주식'에 대한 자금 추가 계획은 1.7%p 증가(2024년 15.3%)한 반면 자금 회수 계획은 무려 16%p 감소하며(2024년 21.8%) 주식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예적금'에 대한 자금 추가 계획은 7.3%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난해(11.0%)보다 3.7%p 감소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며 이자 수익형 자산의 투자 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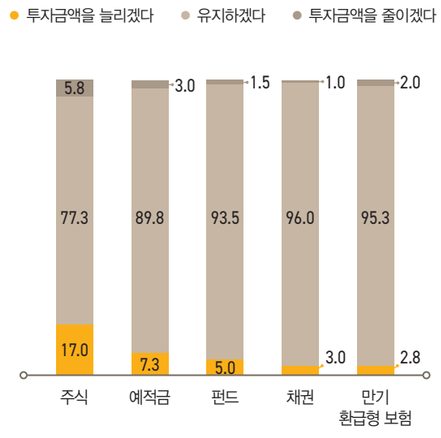
금융자산규모별로 2026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금융자산 중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주식'과 '예적금'의 경우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자금 추가 의견이 높았다.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 18.1%가 '투자금액을 늘리겠다'고 답했고 75.4%가 '투자금액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30억원이상' 부자의 자금 추가 의견은 이보다 3.1%p 적은 15.0%, 현상 유지 의견은 5.3%p 많은 80.7%에 달했다. '예적금'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견 역시 '금융자산 30억원미만'(8.1%) 부자가 '30억원이상'(5.7%) 부자에 비해 2.4%p 높았다. '펀드', '채권', '만기환급형 보험'의 경우 '투자금액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더욱 지배적인 가운데,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현상 유지 기조가 '30억원이상'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했다('투자금액을 유지하겠다' 응답률 차이, '펀드' 0.9%p, '채권' 0.5%p, '만기환급형 보험' 1.5%p). 종합하자면 대체적으로 자금 추가 의견은 미미하나마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가 '30억원미만'의 부자보다 소폭 많았다('투자금액을 늘리겠다' 응답률 차이, '펀드' 2.2%p, '채권' 2.0%p, '만기환급형 보험' 1.3%p).

그림 III-9 차년도 부동산·기타자산 운용 계획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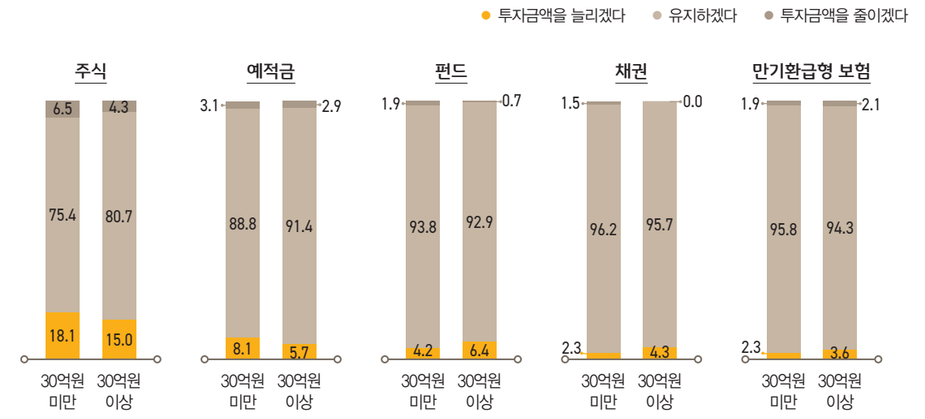
주) 2024 n=400, 2025 n=400

그림 III-10 2026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 (단위: %)



주) 각 항목별 n=400

그림 III-11 금융자산규모별 2026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 (단위: %)



주1) 각 금융상품유형별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0, 30억원이상 n=140
주2) 펀드의 경우 ELS, DLS 제외

2026년 금융투자 기조는 불확실한 환경 속 '현상 유지'인 가운데, 한국 부자는 '주식' 투자를 통한 고수익 가능성에 주목했다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 속 '국내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 1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투자'(37.3%)였으나 주식 상승 랠리가 견인한 금융투자 확대 움직임 속 2위인 '국내 금융 투자'(37.0%, 지난해 3위)와 격차를 좁힘. 뒤이어 '실물(금·보석) 투자'(33.3%),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27.8%), '세무 상담'(20.0%), '은퇴·노후 상담'(16.3%),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15.5%)의 순
- ✓ 자산을 관리하며 겪는 애로사항 상위 두 가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조한 투자 수익률'(20.0%)과 '국내 금융 투자 정보·지식 부족'(17.5%).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정보 과부하, 의사결정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인해 '투자 관리 피로도'(14.0%)가 3위로 상승(지난해 5위), 전세계적인 금·은 상승 랠리 속 실물 투자 관심 확대로 '실물(금·보석) 투자 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13.0%)이 4위로 상승(지난해 6위)

한국 부자는 단기와 중장기 투자 모두에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 ✓ 한국 부자의 과반 이상(55.0%)이 꼽은 단기(내년) 고수익 투자처 1위는 '주식'(55.0%)이며, 이어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에 주목
- ✓ 중장기(향후 3~5년) 고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 1위 역시 '주식'(49.8%)으로, 2위 '거주용 주택'(34.8%)과 3위 '금·보석'(33.8%)과 격차를 확대
- ✓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부자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상자산'에 대해 단기 고수익 예상 12.5%, +10.7%p, 중장기 고수익 예상 12.8%, +9.5%p)
- ✓ 국내외 주식 강세장에 대한 기대 속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상승(37.0%, +2.2%p).'금·보석'(40.0%, +2.0%p), '가상자산'(16.0%, +7.0%p) 등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 역시 증가

내년 금융투자 기조는 '현상 유지'인 가운데 '주식'은 '자금 추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부동산자산(거주용 외)에 대해 '현상 유지'(투자수준 유지) 의견이 우세(88.8%, +5.5%p). '자금 추가'(투자금액 확대) 의견은 8.3%에 그치며(-6.2%p) 보수적 투자 기조가 확대
- ✓ 2026년 금융투자 기조 역시 '현상 유지'인 가운데, 단기 고수익 투자처 1위 '주식'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 의견이 17.0%로 상대적으로 높음('예적금' 7.3%, '펀드' 5.0%, '채권' 3.0%, '만기환급형 보험' 2.8%)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 1위는 2024년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투자'(37.3%)였고, 금융투자 확대 움직임 속 지난해 3위였던 '국내 금융 투자'(37.0%)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국내외 증시 우상향 흐름에 대한 기대 속 한국 부자는 '주식'을 단기(55.0%)와 중장기(49.8%)에 걸쳐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로 꼽았고, 2025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2026년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 역시 상승했다(37.0%, +2.2%p).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융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내년 한국 부자의 금융투자 기조는 '현상 유지'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고수익 유망 투자처 1위 '주식'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17.0%).

붙임

01 I 연구방법
02 I 용어정의
03 I 참고문헌

붙임1 연구방법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는 한국 부자의 현황과 투자 행태, 자산관리에 대한 큰 흐름을 파악하고자 정량조사인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를 실시했고, 정량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 부자가 가진 심층적인 자산관리 행태 및 계획, 니즈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정성조사인 '개인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IDI)'를 실시했다.

'개별면접조사(정량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금융의사결정자로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추출했다. '개인심층인터뷰(정성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40대 이상의 한국 부자 6명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6명 중 3명은 여성으로, 3명은 남성으로 구성했다.

정량조사 : 개별면접조사

조사 대상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및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 보유 • 만 20세이상 금융의사결정자
조사 방법	•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41일)
표본 구성	• 총 400명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400명
표본 추출방법	•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자산규모별 Soft Quota)

정성조사 : 개인심층인터뷰(IDI)

조사 대상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 보유한 금융의사결정자 • 2015년 이전 금융자산 10억원 달성자 • 자산형성과정 중 투자 수익·손실 경험자
조사 방법	• 개인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IDI)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8일 ~ 8월 1일(5일)
표본 구성	• 총 6명(여성 3명, 남성 3명)

응답자 특성

【 연령대별 】

(사례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40대이하	105	151	138	76	83	112	147	96	110	109	90	119	113	106	111
50대	178	135	161	174	178	146	185	164	145	146	149	139	142	139	144
60대이상	17	114	101	150	139	142	68	140	145	145	161	142	145	155	145
계	3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40대이하	35.0	37.8	34.6	19.0	20.8	28.0	36.8	24.0	27.5	27.3	22.5	29.8	28.3	26.5	27.8
50대	59.5	33.7	40.3	43.5	44.5	36.5	46.3	41.0	36.3	36.5	37.3	34.8	35.5	34.8	36.0
60대이상	5.6	28.5	25.2	37.5	34.8	35.5	17.0	35.0	36.3	36.3	40.3	35.5	36.3	38.8	36.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금융자산규모별 】

(사례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억원미만	294	329	321	312	292	301	340	299	297	300	299	260	263	261	260
30억원이상	6	71	79	88	108	99	60	101	103	100	101	140	137	139	140
계	3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억원미만	98	82	80	78	73	75	85	75	74	75	75	65	66	65	65
30억원이상	2	18	20	22	27	25	15	25	26	25	25	35	34	35	3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총자산규모별 】

(사례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억원미만	263	229	253	226	242	242	289	200	227	227	191	167	165	164	157
50억원~100억원미만	32	99	83	113	106	118	75	137	121	128	152	170	171	166	176
100억원이상	5	72	64	61	52	40	36	63	52	45	57	63	64	70	67
계	3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억원미만	87.6	57.3	63.2	56.5	60.5	60.5	72.3	50.0	56.8	56.8	47.8	41.8	41.3	41.0	39.3
50억원~100억원미만	10.8	24.7	20.8	28.3	26.5	29.5	18.8	34.3	30.3	32.0	38.0	42.5	42.8	41.5	44.0
100억원이상	1.6	18.1	16.0	15.3	13.0	10.0	9.0	15.8	13.0	11.3	14.3	15.8	16.0	17.5	16.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붙임2 용어정의

【 부자의 정의 및 유형 】

- 한국 부자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거주용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 부자의 분류 : 금융자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구분

– 자산가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고자산가 : 금융자산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초고자산가 : 금융자산 30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 고자산가 이상 :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합)

【 자산 분류 】

- 총자산 :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의 합
- 금융자산 : 한국 부자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총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거주자·비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부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 가치) 등 포함
- 부동산자산 : 한국 부자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총자산 중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의 합으로 , 개인명의(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자산과 법인명의(개인이 소유한 법인)의 부동산자산 포함
- 기타자산 : 예술품, 금, 보석, 회원권, 가상자산 등으로 현재 시가로 추정

【금융자산 유형 】

- 유동성 금융자산 :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머니마켓펀드(MMF)·단기특정금전신탁(MMT)
- 만기환급형 보험: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기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 주는 보험
-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 주가연계증권(ELS):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 파생결합증권(DLS):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
- 일임형상품: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자가 맡긴 예비자산을 투자자의 투자 성향, 투자 경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주식 및 매각 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 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자산 유형 】

- 거주용 부동산 : 주택,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 거주용 외 부동산 : 거주용 외 주택과 빌딩·상가, 토지·임야 등 부동산
- 거주용 주택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등 포함
- 거주용 외 주택 :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도의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등 포함

【 부채 유형 】

- 금융부채 :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금융상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주식담보대출 포함) 등
- 총부채 :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의 합

【 대체투자 】

- 대체투자 :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주식, 채권, 현금자산, 파생상품 등의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투자
- 대체자산 : 대체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금·보석', 그림, 도자기 등의 '예술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 원유·구리 등의 '원자재', 저작권,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

【 투자지식 수준 분류 】

-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 기본적인 투자의 개념만 알고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 투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와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 전문적으로 분석해 스스로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

【 투자성향 분류 】

- 안정형 : 원금 손실 없이 확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
- 안정추구형 :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 투자 수익이 확보된 투자
- 위험중립형 :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이상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
- 공격투자형 :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하며, 시중금리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 안정지향적 :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 공격지향적: 적극투자형 과 공격투자형의 합)

붙임3 참고문헌

【 도서 】

- 마크로밀 엠브레인(2011~2025), 《트렌드 모니터》 (각 연도별 발간 도서).
-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김난도 외(2009~2026), 《트렌드 코리아》 (각 연도별 발간 도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2024), 《한국 부자 보고서》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5), 《2025 KB 부동산 보고서》.

【 아티클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4.10.31), "2024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5.20),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Altrata(2023, 2024) "World Ultra Wealth Report"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Bank of New York Mellon(2024), "2024 Investment Insights for Single Family Office: A BNY Wealth Study".
- BCG(April, 2025), "Global Asset Management Report 2025: From Recovery to Reinvention".
- BCG(June, 2025), "Global Wealth Report 2025: Rethinking Rules for Growth".
- Capgemini(2018~2025), "Wealth Management Top Trends"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Capgemini(2005~2025), "World Wealth Report"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Cerulli Associates(2021, 2024) "The Cerulli Report: U.S. High-Net-Worth and Ultra-High-Net-Worth Markets"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Citi(2024), "Global Family Office: 2024 Survey Insights".
- Deloitte(2024), "The family office insights series – Global edition: Defining the family office landscape".
- Euromonitor International(November, 2025), "Top global consumer trends 2026".
- EY(August, 2024), "How upskilling wealth managers can unleash gen AI's full potential".
- JP Morgan(November, 2024), "2024 Global Family Office Report".
- Knight Frank(2015, 2024, 2025), "The Wealth Report"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KPMG(2021), "Digital Wealth Management in Asia Pacific".
- KPMG(2024), "Private banking report 2024".
- McKinsey & Co.(February, 2023), "Digital and AI-enabled wealth management: The big potential in Asia".
- McKinsey & Co.(2024), "Asia-Pacific's family office boom: Opportunity knocks".
- Mckinsey&Co.(May, 2025), "The new face of wealth: The rise of the female investor".
- OliverWyman, Morgan Stanley(2024), "Longevity Unlocked: Retiring in the Age of Aging".
- PWM(September, 2024), "Family office space feels the forces of expansion and change".
- UBS(2024, 2025), "Global Family Office Report"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UBS(2024, 2025) "Global Wealth Report" (각 연도별 발간 보고서).

【 디지털 자료 】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홈페이지.